



# 대전시의회 추경 4조 1685억여원 본격심사 착수

## 예결위, 올해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철)는 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651억 2200만원이 증액된 4조 1685억 3500만원으로(일반회계 3조 1602억 5400만원, 특별회계 1조 822억 8100만원)심사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심사에서 전문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 6)은 위즈덤위원회 구성 명단에 대하여 묻고,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익단체의 대표가 다수 가입된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으므로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최종명단을 확인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 등 대응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박병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덕구 3)은 민간위탁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 묻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시설은 없는

지 조사하여 통합할 등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과 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동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2)은 한시지구인 대전시의 과학산업본부 폐지 등 조직개편에 대하여 묻고,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분야의 업무를 시정 방향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부서에 조사를 포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접근을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3)은 대전시 제3회 추경에

산안은 2015년도 당초 본예산대비 18.8%나 증액하는 사항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추계 등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박상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전액삭감하는 사업에 대하여 묻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120콜센터 민간위탁 사업은 신속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등 시민편의 사업으로 콜센터 상담사의 처우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구선관위, 사전투표를 체험·편리성 등 적극 홍보  
찾아가는 사전투표 홍보 캠페인 실시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0~11월 두 달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투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단위로 2번째 실시하는 사전투표 제도 홍보를 위해 지하철 역사, 공공기관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을 찾아가 실제 선거에 사용하는 장비를 이용, 시민들이 직접 사전투표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전투표의 편리성 등을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후보자와 정당명 사이에

## 새정치대전, 성희롱 논란 휩싸인 중구의회 H의원 진상조사 후 '당 윤리심판원 회부' 결정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중구의회 H의원의 진상조사 후 당 윤리심판원 회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신속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9일자 대전일보 7면 보도 '막나가는 기초의회 시민보급 부끄럽다' 라는 대전 중구의회 '음

란사진 보던 의원 女 의원에 전승 파문, 성희롱 논란 휩싸여'에 관련 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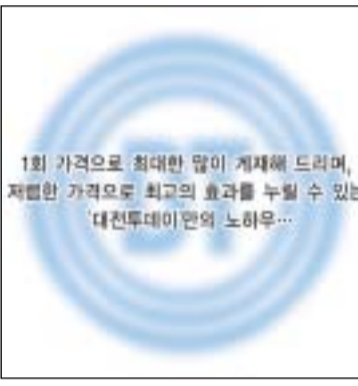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9일 입장 표명에서 "즉각 기본적 사실관계 파악에 돌입, 해당의원 소명 및 반론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다각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새정당은 또 "추후 조사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품위·기품 손상, 의정활동 기강에 심대한 결격사유가 적발된다면 즉각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여부 및 수위

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박병계 시당위원장은 "원칙과 구민 눈높이에서 본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윤리심판원 회부 등 해당의원 처분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 박병석 의원 "도안대로 건설사업 본격 추진"

박병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서구)은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계룡시 두마면을 잇는 국도4호선 확장사업과 서구 관저동-도안 신도시(독원대 옆)를 잇는 도안대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동력을 얻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서 국도4호선 확장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도안대로 사업에는 시비 50억원이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의원은 "대전과 논산을 잇는 국도4호선은 도로 굴곡이 심하고 통행량 증가에 따라 잦은 교통사

고 등 불편이 많았다"며 "국도4호선 확장이 이뤄지면 서남부권과 논산시간의 통행시간도 줄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박의원은 국도4호선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이어 기획재정부에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해 예비타당성조사로 선정되는 성과를 낸 수 있었다.

또 박의원은 "도안지구의 교통량 증가로 상습정체 및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도안2단계 개발이 늦어져 도안대로가 추진이 안되고 있었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발생과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협의를 진행해 시 예산에 50억원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도안대로 사업은 서구 관저동 원앙마을(1단지)- 유성구 용계동 1.9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약 884억원이다.

내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의원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철저하고 성실하게 대응해 도로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그동안 발곡길 확장, 유동천 좌안도로, 계백로 우회도로 등의 도로 건설확장, 광역철도망 에타터널과 등 교통환경 개선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

## 대덕구-새누리당 대덕당협 당정회의 열어 지역현안 논의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와 새누리당 대덕구당원협의회(위원장 정용기, 이하 대덕구당협)가 10일 지역 핵심 현안 공조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9일 대덕구에 따르면 박수범 대덕구청장을 비롯한 대덕구 주요 간부들과 정용기 새누리당 대덕구당원위원장을 비롯한 당협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대덕구 당정협의회는 10일 오전 7시 대덕구청 회의실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대전회덕IC 조기 건설 등 16개 주요현안 사업 추진에 공동대응체제를 논의한다.

이번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지역 현안 사업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추진 ▲국방신뢰성 시험센터 유치 ▲회덕IC 조기건설과 국도 17호선 연결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전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 건설 ▲연륙지구 도시개발사업 ▲남한제지 및 쌍용양회 도시개발사업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동 육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동 새마을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상서·평촌 재생지 추진지구 도로건설 ▲행복주택 건설사업 ▲장동 고갯길 위생도로개선 ▲회덕동(장동취락) 지역 도시계획 도로사업 ▲사중골(읍내동) 재해위험지역 개선 ▲중리동 한층공원 시설정비 등 16개 사업이다.

대덕구는 이 자리에서 16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시·비 관련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새누리당 대덕구 당협위원장인 정용기 국회의원과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같은 현안사업과 관련한 양측의 공동대응체 구축은 의도 함께 밀 예정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대덕구는 최근 충청권광역철도망에타 통과와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지역 유치뿐만 아니라 회덕IC 신설이에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 핵심 현안들과 관련한 기쁜 소식들이 연일 들려오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시안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지역 여론을 사업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대덕구와 새누리당 대덕당협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허남영 의원, 2015 대한민국 사회발전공헌 대상

기초의원 중 유일하게 지방의정발전 부문 수상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과 '2015 대한민국 사회 발전 공헌 대상'으로 나누어 공헌도 중심의 심사로 선정해 시상식이 이루어졌으며, 수상자들을 비롯하여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허남영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회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고 사회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공헌 문화 확산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제정됐다.

계룡=주선웅기자

## 이명수 의원, '선진국형 재활치료 제도' 정책토론회 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선진국형 재활치료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의 복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의 30만 재활치료사 분들이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계신다"며, "하지만 이러한 재활치료사들의 노력과 재활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활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

상을 통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활치료 분야의 학문과 임상이 모두 발전되어야 하며, 학계와 전문가 분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내의 재활치료분야 이끌어 가는 재활전문단체 대표와 재활치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재활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이 토론회를

통해 선진 재활치료 제도 확립의 기틀을 마련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수경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고,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강형진 위원장, 순천향대 정병근 교수, 강남대 김재욱 교수, 한림대 정현수 교수, 이화여자 김수지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정배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 김길년소장, 국회의원 출마 선언

활발한 경제희망의 아산민들

김길년 아산발전연구소장(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청년위원장)이 9일, 아산시 배방읍 소재 본인의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출마 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출마 선언식에서 김 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경제살리기에 제가 가진 젊은 역량을 보태고자 새누리당 후보로 2016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기존 정치인들의 행태가 꼭 거품이 들어 바닥을 드러



김길년 아산발전연구소장(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청년위원장)이 9일, 아산시 배방읍 소재 본인의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출마 선언식을 가졌다.

낸 저수지를 보는 듯 대책이 없다"며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계속적인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지적하며, "아산시 구석구석을 돌며 민심을 들어 볼때 서민들이 많이 아파하며 고단하고 힘들어 한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인 자영업이 살고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이 민심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지역별 맞춤형 국회의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정신이 어떠한 형태든 이루어

## 새누리당 대전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신뢰의 정치 펼칠 터"

새누리당 대전 국회의원회장과 당협위원장은 9일 대전 주요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여야가 힘을합쳐 뚝나갈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전과 대덕의 10년 숙원 중 하나인 회덕IC 신설사업이 드디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설계비 예산 확보에 이어는 낭보로 대전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중앙부처 실무 관료들이 강력반대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반

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약속한 대표적 공약은 대부분 이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예산 확보나 진행중인 사업이 순조롭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여·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 대전시당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야당은 미흡했다"면서 "KTX가 한 대도 정차하지 말아야 한다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우리 지역 야당의원들은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선지구중심권제도 지역에 서민 서민운동을 벌였지 실제로 비해대표는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야당 지도부에 대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관련 예산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지역에서만 목소리를 내지 말고 야당 내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최명길 전 MBC 유럽지사장, 유성선거에서 20대 총선 출마

최명길 전 MBC 유럽지사장이 유성선거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한다.

최명길 전 MBC 유럽지사장은 오는 13일(일) 오후 2시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



최명길 전 MBC 유럽지사장이 오는 13일(일) 오후 2시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

당 회의실에서 대전 유성 선거구에 20대 총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9일 밝혔다.

최명길 총선출마자는 출마의 변에서 "방송사 워싱턴특파원, 파리와파원으로 일하면서 세계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던 것처럼 국회의 유성특파원으로서 대전의 가치, 유성의 잠재력을 온 나라에 알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명길 출마예정자는 1961년 이후 새정치연합 공보특보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외교학(석사)을 전공하였고 MBC 보도국 정치 2부 부장, 보도본부 보도전략팀 팀장, MBC 보도국 국제부 워싱턴 특파원등을 역임했다.

# 지자체 사회복지직 5급 공무원 전체비 0.9% 그쳐

##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복지6급은 12.2%로 일반직 공무원 중 최저 수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대표 양성근)가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은 총 98명으로 전체 사회복지직에 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급은 12.2%로 타 행정직군의 공무원보다 월등히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시도 분장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직 1만6천명중에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자라 할 수 있는 복지사무관의 인력은 100명도 안되는 98명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0월말 기준 16,084명이며 이중 사회복지5급은 0.9%인 98명이다. 시도별 비율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7.5%(22명)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광주광역시(1.8% 8명)로 나타났다. 하위 5개 시도는 인천, 부산, 대구, 충남, 충북이다.

행정직의 경우 5급 비율이 전체

행정직의 8% 이상이며 시설직, 보건직은 각각 5.8%, 3.1%로 나타났다. 주요 직렬에서 모두 사회복지직 보다 적게는 15%, 많게는 4%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도별 비율로는 신생 지자체인 세종시가 20%(97명)이고, 충남이 9.6%(430명)로 뒤를 이었다.

복지업무의 중간관리자인 사회복지6급의 경우에도 승진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6급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곳은 세종시(26.9% 18명)이고, 충북(15.7%)과 충남(15.4%)이 그 다음 순위를 보였다. 저조한 지역은 인천광역시(5.3% 3명), 강원도(8.1% 7명), 대구광역시(9.8% 7명) 순이었다.

행정직 등과 비교할 경우 적게는 13%(시설직, 보건직), 많게는 17%이상(행정직) 차이를 보였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양성근(포항시 근무) 회장은 "사회복지 사무관이나 6급의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행정직 등 타 직렬과의 근무연수 차이가 이유로 든다. 근무연수에서 3-5년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행정자치부 매년 6월 발표)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5급 승진 소요연수는 298년(6월 기준)이다. 198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복지직 16,084명 중 산술적으로 20년 이상 근무자는 2,984명에 달한다. 중간에 퇴사하거나 전직할 경우를 제외하고 2,500명이라고 봤을 때 5급, 6급 간부 공무원 비율은 턱없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직의 증원은 일반적으로 사회양극화 현상 지속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와 보편적 복지 육구에 공공영역이 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다. 그러나 20년 넘게 근무해도 간부직 공무원으로 승진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를 갖고 근무하기 어렵고,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

양성근 회장은 "2013년도 사회복지 공무원 자살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복지인력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잇따라 복지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피로부

는 개선효과가 미미하다. 여전히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 두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의 공무원 사기 진작책의 핵심은 승진인사인데, 이런 부분이 잘 미흡하였다"고 강하게 말했다.

양성근 회장은 또한 "우리나라 복지예산과 사업의 대부분이 복지공무원을 통해서 집행 관리되고 있다. 행정직 또한 인사체계가 심각하다고 하나 사회복지직만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직과 달리 복지직 사무관이나 6급직급이 맡을 업무는 한정되어 있다. 주로 읍면동이나 복지부서 3-5개부서가 전부다"며 "그나마 2006-2007년도 주민생활지원전담체제 개편의 결과로 읍면동의 주민복지팀 신설과 읍면동장의 복수직제라는 나름의 성과였다. 복지직들은 내심 기대도 하였다. 그러나 실상 대부분은 복지사업의 경험이 없는 행정직이 자리를 차지하여 수년 동안 사회복지직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고 이번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정복 기자



## “갈등 조기해소·지역경제발전 기반 마련”

### 주민-천안시-한전, 직산변전소건설공사 상생협력 MOU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9일 오전 11시 천안시청에서 구분영 천안시장, 직산을 주민대표와 '지역주민-천안시-한전 간 154kV 직산변전소 및 판문 송전선로 건설공사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다.

민과의 신뢰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이번 MOU는 전력설비 건설 갈등 발생 초기에 주민과 한전이 '주민-한전간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직접 이해당사자간의 적극적인 합의노력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한 모범사례로써, 입지 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결과에 대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천안시와 주민들은 한전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우선시하는 대응적인 차원에서 전력설비 건설을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며, 한전은 전력설비 견학, 전차과 체험 캠프 운영 및 지속

'154kV 직산변전소 및 판문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천안시 직산을 일원 및 북부지역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154kV 변전소 1개소 및 송전철타 1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전은 올해 1월 입지선정 초기단계부터 천안시, 주민대표,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진행의 공론화를 통한 투명한 운영으로 주

적인 갈등회와 공청회 개최 등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 한전은 이번 MOU를 계기로 직산변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됨에 따라 변전소가 준공 되는 2019년 이후부터 보다 안정적인 고품질의 전력공급이 가능해지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발전도 크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력설비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배 기자

## 2015제3차 기술사업화전문가연합포럼

# 전문가네트워크 구축 등 성황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협회장 김순식)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과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주최하는 "2015 제3차 기술사업화전문가 연합포럼"을 한밭대학교 지능형기계산업육성사업단(단장 민병찬)과 공동으로 8일 17:00 유성 리베라호텔 광대홀에서 민병찬 한밭대 지능형기계산업육성사업단장, 대전시의회 건설산업위원회 김동섭 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성열 감사, 금오공대 이승희 기획협력처장, 충북대 배기수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등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광역시가 지역연고특화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전지역의 '지능형기계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지능형기계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진흥협회에서 배출한 기술사업화전문가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문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 행사 제1부 순서에서는 국제특허파트너스 박요창 변호사와 박성



열 박사가 '지능형기계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제2부 순서에서는 그동안 진흥협회가 배출한 4,000여명의 국내 최대 기술사업화전문가 모임인 '한국기술경영사·기술평가사 총동맹회'의 제3

대 회장에 송현수 특허기술평가원을 위한 기술사업화 총동맹회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으며, 이어서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로 가졌다.

김순식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뿌리산업인 지능형기계산업의 발전이 국가산업의 근간이며 한국경제의 미래가 기계산업에 의해 좌우된다'며 뿌리산업에서의 기술사업화전문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민병찬 단장은 축사에서 '지능형기계산업분야에서 R&BD를 선도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가들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김동섭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전시의회 건설산업위원회 의원으로서 앞으로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전문가들을 축하, 격려했다.

한태수 기자

## 에너지연, 제2회 KIER에너지한가족 파트너십 Day

# 지원 성과 나눔·우수사례 발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기우 원장)은 12월 10일 오후 2시, 대전 호텔ICC에서 2015년 한 해 동안의 패밀리기업 지원성과를 나누고, 연구원과 기업 임직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2회 KIER 에너지한가족 파트너십 Day'를 개최했다.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 한 해 '에너지한가족'을 통해 전국 197개의 중소·중견기업에 기술자문, 연구기획 지원, 정보제공 등 멘토링을 하고, 연구원과 기업 임직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2회 KIER 에너지한가족 파트너십 Day'를 개최했다.

이번 에너지한가족 파트너십 Day는 그동안의 중소중견기업 지원활동들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자리로, 3건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사례 발표 및 포상, 우수 패밀리기업 선정, 화유망 에너지기술 컨퍼런스 등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봉관 기자

## 건강검진 가족사랑의 시작입니다!

**암검진 -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5대암 대상**

종류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상	만40세 이상	만40세 이상	만50세 이상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만30세 이상
주기	2년	2년	1년	1년	2년
항목	내시경검사 또는 조영검사	유방촬영	분변암혈액검사(잠혈), 내시경검사 또는 조영검사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 검사비용 : 본인부담 10%(단, 자궁경부암, 국가암 대상자는 본인부담 없음)

---

### 일반건강검진 -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발견과 생활습관 개선 지원

#### 일반건강검진

- 지역가입세대주 - 나이지연없음, 해당연도 검진대상자
- 세대원 - 피부양자 - 만40세 이상 해당연도 검진대상자
- 직장가입근로자 - 사무직(2년에 1회), 비사무직(매년)
- 외국금여수급자 - 만19세 - 만64세 세대주, 만40세 - 만64세 세대원 중 해당연도 검진대상자

1차검진 - 진찰, 상담, 문진, 신체계측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2차검진 - 고혈압, 당뇨확진검사, 인지기능장애검사

※ 시책 - 정책은 문헌면허 신체검사 수위로 활용되므로 인강허용자는 고정시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대전유성지사**

## 동구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열려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은 8일, 구청 공연장에서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 '2015. 동구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시상, 장학금 전달, 각종 축하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인 '뮤즈'의 아름다운 동행 콘서트를 감상하며 한해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로하는 만남의 장을 만들었다. 특히, 이날 자원봉사를 통해 밝은 사회 구현에 앞장선 개인 및 단체별 유공자에게 각각 표창이 수여됐으며, 아낌없는 후원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곳곳에서 감초 같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올 한해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몰입양면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곳곳에서 감초 같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호 기자

## 5개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규 인가

한국영성대, 예체능 4개학과·인문사회 1개학과 등 이번 신규 인가된 학과에는 예체능계열 영화영상학과(20명), 광고영상디자인학과(20명), 게임애니메이션학과(20명), 이벤트연출학과(20명)이며, 인문사회계열은 유아교육학과(30명)이다. 한국영성대는 2016학년도부터 기존 4개학과(영상연출학과, 음향제작학과, 연기학과, 사회복지학과)와 신규로 인가된 5개학과를 합쳐 총 9개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사회복지학과를 제외한 8개학과는 주간으로 운영되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김일수 입학홍보처장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교원확보, 교사확보 등 대학의 교육 여건 우수성에 따라 인가가 결정되는 만큼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영성대는 12월 부터 9개학과 총 215명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정성범 기자



# 영화·드라마 촬영지원 이웃기관과 손 맞댄다

# 논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36억원 부과

## 충남도,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유관기관' 워크숍...기관별 협력방안 논의

충남도가 영화·드라마 촬영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이웃 기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9일 예산 덕산리수스파크에서 '충남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 및 기관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영화제작 관계자와 도와 15개 시·군·도경찰청 및 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충남영상위원회의 정책 설명회와 특강,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은 영화 '변호인'을 제작한 최재원 워너스필름 대표가 '영화 제작과 로케이션 촬영'을 주제로, '워낭소리' 제작자인 고영재 인디플러그 대표가 '영상 관광과 지역경제 효과'를 주제로 각각 진행했다.

최재원 대표는 특강을 통해 영화 '변호인'과 '마더', '조선 마술사' 등의 제작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역 관광 홍보연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영재 대표는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 학교'와 '워낭소리'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영상 관광 활성화 전략과 준비 조건 등에 대해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도내에서 영상물 제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참여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워크숍 등 모임도 정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충남영상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9월과 10월 영상산업 관계자 및 할리우드 영화 제작 관계자 등을 초청, 팸투어를 진행했다.

내년부터는 도내에서 제작되는 영화·드라마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도내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36억을 부과하고 12월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 10만원 미만으로 지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 까지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본인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포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 상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여 3%의 추가 가산금 및 변호관영치#8228: 재산인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 게시,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에 홍보 포스터#8729안내문 배부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2)로 문의하면 된다.

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 상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여 3%의 추가 가산금 및 변호관영치#8228: 재산인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 게시,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에 홍보 포스터#8729안내문 배부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2)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한대수기자

## 계룡시 자동차세 2기분 부과

계룡시(시장 최홍목)는 2015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로 6,709건 10억 5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 후납 방식으로 과세되며,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으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면·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실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계룡=주선웅기자

## 기업인대회·노사화합 한마음행사 열려

### 공주시, 근로자 사기진작·상생과 화합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 8일 금성동 리버스컨벤션에서 '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및 노사화합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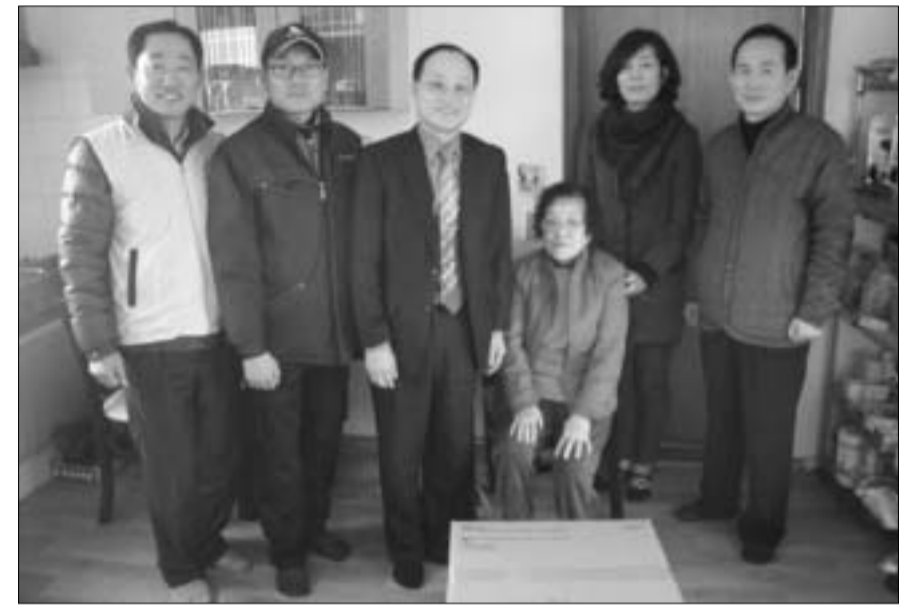
공주시가 주최하고, (사)공주시기업인협의회(회장 조동현) 주관한 이날 행사는 기업인과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상생과 화합, 기업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사)공주시기업인협의회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기부금 1천만원을 대한노인회 공주시지부에 전달했으며, 기업발전에 공이 큰 모범 근로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이날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기업지원 설명회 진행하고 현대자동차 6년 연속 전국 판매왕에 오른 임희성 부장의 특강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공주시 명규식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인과 근로자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정상범기자



## 서대전우체국의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 소외계층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행복나눔 자원활동

서대전우체국(국장 나기섭)은 지난 7일 중국지역 홀몸어르신들에게 이불 등 겨울용품 지원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봉사활동을 펼쳤다.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는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에서 추천한 중국지역 홀몸어르신들 147명에 대해 우체국 36봉사단 등 우체국직원 2-3명과 특거노인생활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겨울나기 용품이 불, 목도리, 장갑, 마스크, 조끼, 양말을 전달하고 주거정리 안부문기 말뚝배주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홀몸어르신 겨울용품지원은 '우체국 행복나눔 주간'을 맞이해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실시했으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서대전우체국 나기섭 국장은 "겨울나기용품 하나하나에 담긴 직원들의 정성이 올 겨울을 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좋은 사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 화제의 영화 다시 보는 '씨네 아이콘' 열려

### KT&G, 올 한해 활약 펼친 영화배우 선정 25일부터 열흘간 상영

KT&G가 올 한 해 뜨거운 활약을 펼친 영화 배우들을 선정하여, 출연 작품들을 상영하는 '2015 씨네 아이콘(CINE ICON: 배우 기획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 열리는 '씨네 아이콘'은 감독과 작품에 주로 주목하는 기존 기획전들과 달리, 활약이 뛰어난 배우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상영하는 차별화를 통해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다. 특히 독립예술영화와 상업영화 구분 없이 올해의 배우와 작품을 선정함으로써, 관객들에게 폭넓은 장르의 영화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 산업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문화의 중심지인 흥대 거리에 위치한 'KT&G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크리스마스인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전도연과 정재영, 사를

리즈 테론 등 '2015 씨네 아이콘'으로 선정된 배우들의 작품 14편 외에도 내년도 기대주들이 출연한 개봉예정작 3편과 일본의 거장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작품 3편 등 총 20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또한 26일에는 영화 관련 애장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플리마켓(Flea market)'도 열린다. 영화에 매 관심한 정보 확인은 상상마당 홈페이지(www.sangnamadang.com)에서 할 수 있다.

KT&G 관계자는 "행사기간 동안 씨네 아이콘으로 선정된 배우 및 영화 관계자들이 찾아와 관객들과 대화하는 자리도 마련될 것"이라며, "올 한해 영화계에서 활약한 배우들의 명언들을 다시 감상하며 함께 즐기는 연말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태선기자

## 천안시 농지이용 실태조사

천안시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농지법 시행령(1996.1.1)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했다고 인정하는 농지나 영농여건불리 농지를 정당한 사유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한 경우,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한 경우 등없이 휴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을 거쳐 1년 이내의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한다.

처분 의무 대상자는 1년 이내에 자정

을 하거나 매매를 해야 하며, 자정을 하면 처분명령에 대하여 3년 유예기간을 주어 농업경영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있다. 자정하지 않거나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 6개월의 기간을 거쳐 매년 이행강제금공시지기의 20%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농지 취득시 자정 여건 등을 판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실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천안=김정환기자

##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경찰청 CSI 3기 11명 합격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최근 2015년 경찰공무원(순경) 과학수사요원 특별채용에 법과학대학원 3기 졸업생 중 16명이 응시해 11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최근 2015년 경찰공무원(순경) 과학수사요원 특별채용에 법과학대학원 3기 졸업생 중 16명이 응시해 11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과학수사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수사나 법과학 관련 전공에 대해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고 1차 전공

면접에서 2배수를 선발한 후, 2차 체력 및 인·적성검사, 3차 최종 면접을 통해 선발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홍성욱 법과학대학원장은 "경찰 과학수사 직무에 맞는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다수의 합격자 배출은 잘 짜여진 교육과정

## 내고향물살리기운동 실천수기 공모전 시상식 실시

### 한국농어촌공 천안지사, 청수고교 정해인학생 충남도교육감상 수상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지사장 오수훈)는 9일 천안시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교육지원청 관계자, 수상자가족 및 지도교사, 공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내고향물살리기운동 전국 학생·주부 실천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천안=김정환기자



## 대전농협 농촌인력증가사업 추진

대전농협이 농촌인력부족 문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촌인력증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박송현, 이하 대전농협)는 도농간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지역본부에 농촌인력증가센터를 개설하고 관내 농촌협과 함께 농촌인력증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사업 3년차인 올해는 도시와 농촌지역으로부터 근로의사가 있는인자리 참여인력을 모집해 인력 POOL을 구성하고, 유·무상 농촌인력증가 참여자를 인력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수시로 적기에 소개하고자 농촌인력증가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대전농협은 농협 신용 및 경제사업장과 은행 ATM기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구인 및 구직자에 대한 모집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전관내 농업인이 인력증가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도시 유류인력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농촌인력증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전농협의 노력은 2014년 농협중앙회 농촌인력증가사업 평가에서 7개 시도본부 중 1위를 달성했고 2015년 상반기 평가에서도 시도본부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편, 농촌인력증가센터는 농업인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참여 희망자는 누구든지 인력증가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 역시 인근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송병배기자



### 자원봉사자·후원자 송년의 밤 행사

#### 당진시노인복지관

당진시노인복지관은 지난 8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15년 한 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자원봉사자·후원자를 위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광 시장의 등 외부 인사들이 참석해 자원봉사자 후원자 송년의 밤을 축하했으며, 또한 20여개의 자원봉사단체, 후원업체, 개인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총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보건소 엔젤스케어협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 우수자원봉사자 개인부문(이병국, 임미락, 이혜숙, 정기정), 단체부문(새마을운동당진시지회), 우수 후원자 부문(너븐감자탕 김민영) 시상, 자원봉사자육성사업 및 후원사업 보고 순으로 진행했다.

2부에서는 소리향 오카리나, 투먼아트컴퍼니 한국무용단 공연 등의 축하공연과 식사, 기념품 증정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 참여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당진=최근수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제천시 협약체결

### 치유의 숲 조성으로 건강증진 도모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승희)은 지난 7일 치유의 숲 조성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제천시(시장 이근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국민의 스트레스 완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 치유 서비스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산림청에서 제천에 조성하는 치유의 숲은 산림내의 물·계곡수, 자연수, 암석 등 자연지형 지물을 활용한 친환경적 치유공간과 산림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특색있고 차별화 있게 추진한다.

국립 치유의 숲은 현재까지 8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36개소까지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가장 '제천(청풍) 치유의 숲'은 제천시 청풍면 화현리 일대의 국유림에 올해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16년 실시설계 및 착공 등 2018년 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9년 개장할 계획이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양 기관의 협력을 계기로 산림을 이용한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숲 체험 프로그램 등 국민들에게 산림 치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성범 기자

### 한밭대, 필리핀 만다웨이시청 대표단 내방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8일 오후 4시에 필리핀 만다웨이시청(City of Mandau) 대표단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조나스 코르테스(Jonas Cebungal Cortes) 시장, 디오스다도(Diosdado Suico) 시의장, 제임스(James Matbagal Abacia) 시 변호사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방문에서 양 기관은 자원봉사프로그램, 사회활동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으로 한밭대는 만다웨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능기부, 문화교류 등 국제사회봉사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밭대는 올해 2월 만다웨이 지역에서 약 2주간 국제사회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내년 1월 '제2차 국제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 청양군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상 수상

청양군은 9일 태안 리솜 오션캐슬에서 개최된 '2015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고대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과 임예방관리 민간인부문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고대회는 올해 도내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표창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내년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다.

이날 시상식에서 군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 취약

계층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또 임예방관리 유공 민간인부문에서 국가암검진 홍보에 적극 앞장 선 김동선 이장(청양읍 읍내1리)이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내년에 도 보건·의료 분야에 걸쳐 전 직원 합심해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 기자

# 소주값 인상으로 928억 증세

## 납세자연맹, 원가 올라 소주稅도 5.61% 인상... 1병당 29원꼴

최근 소주 회사들이 소주 출고가 5.61% 올린 결과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총액이 병당 286원 증가, 예년 수준의 판매량만 유지하더라도 연간 928억 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담뱃값을 한꺼번에 80%나 올려 내년엔 6조원 가까운 담뱃세를 간접세로 더 걷게 된 정부가 이번엔 원가에 연동돼 출고가액 대비 무려 53%를 차지하는 소주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소주회사들의 원가인상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앞서 451.6원이던 소주 원가가 최근 476.9원으로 25.3% 상승, 원가의 72%인 주세와 주세의 30%

인 교육세, 이들 세금을 원가를 더 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합쳐 연간 약 928억 원이 소주세로 증세될 전망이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판매마진이 포함된 원가를 올려 이득을 보는 소주 회사들과 원가인상을 통해 주세(酒稅) 등 소주 관련 세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 반가운 국세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면서 "살림이 점점 팍팍해져 가는 서민들이 또 소주회사와 정부를 부양하게 된 것을"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통계연보>를 인용, "서민들이 흔히 즐기는 <참이슬>과 같은 희석식 소주로부터 정부가 한 해 동안 걷는 세금은 2013년 기준 약 1조6538억원으로,

모든 술로부터 거둔 전체 세수 약 4조6354억원의 35.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맥주의 본고장인 독일보다 최고 100배 높은 맥주세율을 적용해 같은 기간 거둔 맥주세수(약 2조2814억원)에 버금가는 세수규모다.

연맹에 따르면, 소주 한 병의 출고가 9617원에서 10157원으로 54원 오르면 국세청은 앞서서 1병당 세금 28.6원, 2013년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연간 약 928억 원(1조6538억원의 5.61%)의 세수가 증가한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주류업계는 원가인상 요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최근 순한 소주 추세는 주정이 덜 들어감에 따라 원가하락 요인이 되고, 최근 급락하고 있는 국제유

가, 얼어붙은 소비심리 등을 감안할 때 원가인상 요인은 적어 보인다"면서 "세수를 더 걷어야 하는 국세청이 소주 관련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원가인상을 부추기거나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소주에 붙는 세금을 직접 올릴 필요 없이 소주 원가만 올리면 소주 관련 세수가 저절로 늘어나기 때문에, 애주가들의 반감이 적을 것으로 보고 소주 값 인상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 정부는 담뱃세와 마찬가지로 주로 간접세 위주로 세금을 올려 정치적 부담을 피한다고 생각만, 최근 순한 소주 추세는 주정이 덜 들어감에 따라 원가하락 요인이 되고, 최근 급락하고 있는 국제유

김정환 기자

#### 충남대 동문창업기업 CEO모임

충남대가 청년창업 펀드 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동문창업기업 CEO초청 모임을 갖는다.

충남대 산학협력단은 12월 10일 오전 11시,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충남대 동문창업기업 CEO 모임'을 갖는다. 이날 모임에는 충남대 동문 창업기업인과 LINC사업단 참여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는 그 동안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LINC사업)의 성과를 대학 전체에 확산시키고 학생창업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동문창업기업 CEO모임을 통해 학생창업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충남대는 창업펀드 조성을 위해 대학에서 5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동문창업기업 CEO들로부터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이정복 기자

### 유네스코 무형유산 포럼 11일 열려

유네스코亞太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허권)와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경동)는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12월 1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31F)에서 '국제 무형유산보호 흐름의 이해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2015 유네스코 무형유산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는 전국 228개 문화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동체의 정체성과 창의성의 원천인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다양한 국제적·국가적 무형유산 보호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역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 있는 NGO들의 역할 증대에 대한 기대는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내

지방 향토문화 연구와 발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228개 문화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무형유산보호 흐름 및 동향을 보급하고, 무형유산을 통한 지역 발전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세션 1에서는 국내외 무형유산보호 제도와 흐름을 살펴보고, 세션 2에서는 국내 6개 지역에서 무형유산 보호와 활용을 통한 각 지역발전 사례를 발표한다.

특히, 최근 한국의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줄다리기'의 무형유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에 대한 실제 경험 등이 발표된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무형유산 보호 동향과 흐름에 대해 이해하고, 무형유산 보호가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할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해 볼 기회가 될 것이다.

박봉관 기자

### 농·생명 바이오분야 기술개발 지원

#### 단국대, 관련 산업계 발전 도모

단국대(총장 장호성)가 9일 오전 10시 천안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농·생명 바이오 기술사업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단국대 링크사업단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해당 분야 교수들을 직접 연결시켜, 농·식품 분야의 산학공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그린팜, 피씨에프영농조합법인, 제주지에 등 13개 기업이 참여해 기업별도 새틀개 추진할 연구사업 개요를 발표하고, 각 연

구사업을 진행할 교수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사업 이외에도 '마케팅 지원 방법 및 사례'에 대한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진의 강연도 열린다.

또한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지원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 ▲연구시설 및 인력지원 ▲공동연구과제 수행 ▲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제품표장 및 디자인 ▲제품 마케팅 및 홍보 ▲금융컨설팅 등 해당 분야 교수들의 컨설팅도 진행된다.

이계형 단국대 링크사업단장은 "대학의 다양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실질적인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청 '사랑의 땀감 나누기' 실시

#### 소외계층 1만 세대에 전달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올겨울 '사랑의 땀감 나누기'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땀감을 전하는 행사다.

특히, 사랑의 땀감은 숲 가꾸기를 통해 나온 부산물(고사목·나뭇가지 등)을 모은 것으로, 버려진 나무를 취약계층의 난방용에

너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산림청은 올겨울(내년 3월까지) 전국 1만 세대에 5만 톤의 숲가꾸기 부산물을 난방용 땀감으로 공급한다. 지난해에도 저소득 취약계층 7000세대에 3만3000톤의 땀감을 지원한 바 있다.

산림청 이종진 운영지원과장은 "올겨울 사랑의 땀감을 통해 1만 세대에 온정을 전할 계획"이라며 "단순한 땀감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직원 봉사동호회를 통해 땀감 나누어주기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다양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2015 충청남도새마을운동 촉진대회

### "도민 역량결집 화합의 구심점"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임동규)는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 공주시 충남도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2015 충청남도새마을운동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임동규 충청남도새마을회장을 비롯한 도내 15개 시·군 및 207개 읍·면·동 새마을가족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는 유공지도자 표창 및 추시, 서산새마을회 우수사례 발표, 제2새마을운동 실천 결의, 새마을운동 촉진 퍼포먼스, 조명수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의 '제2새마을운동 추진방향'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명수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과 인희정 충청남도지사, 김기영 도의장, 오시덕 공주시장, 이해

선 공주시의회 의장 등 도내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대회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공헌한 소공숙 아산새마을부녀회장과 2명이 정 부포장, 김지중 서산시새마을회장과 2명이 대통령상, 한상규 직공장 서산시협의회장과 1명이 국무총리상, 김호주 홍성군 서부면협의회장과 2명이 행정부장관상을 비롯해 새마을운동중앙회 표창 46명, 충청남도지사 표창 45명, 충청남도새마을회장 표창 25명, 우수지도자 표창 6개 시군 등이 2015년도새마을운동 유공자 및 단체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았다.

임동규 도새마을회장은 "금년 한 해에도 새마을정신과 나눔, 봉사, 배려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시군별 지역의 일선 현장에서 제2새

마을운동을 펼쳐 오신 충남 20만 새마을가족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문화공동체운동으로 삶의 질 향상 ▲이웃공동체운동으로 도민통합을 통한 살기좋은 충남건설 ▲경제공동체운동으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지구촌공동체운동으로 지도자 육성 및 지구촌 행복사대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안희정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새마을운동은 농업사에서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밑바탕이 됐으며,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1970년대 가난 극복의 밑거름이 됐다"면서 "2016년도에 도내, 봉사배려의 제2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력과 국격을 높이는 국민운동, 공동체 강화와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 도민 역량을 결집하는 화합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 KAIST-서울아산병원, 의료분야 산업수학 융합연구 MOU 체결

### 의료분야 수학적 모델 활용 해결



KAIST 수리과학과(학과장 이창욱)와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학과장 오연택)는 9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6층 대회의실에서 '의료분야 산업수학 융합연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수학을 통해 그 해결방법을

찾아보자는 데 대해 양 기관이 공감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우선 △의료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의료 데이터의 체계적인 저장과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 △양 기관의 연구인력 상호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영상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의료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그 기술을 상용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KAIST 수리과학과는 순수수학 뿐 아니라 영상처리수학, 생물수학, 확률과 통계적 방법론 등 산업과 관련된 수학 연구를 진행 할 계획이다.

2014년 설립된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는 의학과와 공학을 연구하는 30여명의 교수진들이 참여해 중개 및 융합연구를 진행 중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분야 문제해결에 수학적 모델을 다양하게 활용 할 계획이다.

이창욱 KAIST 수리과학과 학과장은 "2000년대 들어 수학적 금융, 바이오, 제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크게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수학과 의학이 만나는 새로운 융합연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범 기자



청양소방서, 동절기 인명구조대책 추진 청양소방서(서장 이광성)는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요 등산로 및 저수지 등에 안전시설을 보강·정비하는 등 '겨울철 인명구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주경찰서, 김주진 경사 승진 임용식 가져 공주경찰서(경찰서장 이안복)는 12월 9일 소회의실에서 각 과장, 동료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승진 임용식을 가졌다. 이날 승진 임용식에서는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김주진 경사는 경사로 승진 임용되었다.



청양서 선제적 연말 특별방범활동 실시 청양경찰서(서장 조기연)에서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선제적 특별방범활동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팀 오늘은내가 소방관 태안소방서(서장 송원규)가 태안군 드림스타트팀을 대상으로 태안 청소년수련관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금산소방서, 하트세이버 수여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해 죽음을 위기에 처한 심폐소생술 등으로 생명을 구한 일반인들이 하트세이버의 영예를 안았다.



충남대, 제1회 'CNU Edu-Fair' 개최 충남대 기초교양교육원은 12월 9일 오후 2시, 백마교양교육관에서 '제1회 Edu-Fair'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충남대 교수자 및 충청권역 대학 CTL관계자, 타 대학 교수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 계약체결 과정 조달업체 가격조작 의혹 확인

## 조달청, 48개 계약업체 대해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 조치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다수공급 계약(MAS) 계약과정에서 가격조작 의혹이 확인된 토목용보강재 48개 계약업체에 대해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최근 토목용보강재의 조달단가가 시중가격보다 비싸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에 대한 표본추출(샘플링) 현장실사 확인 및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자료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조달청 계약과정에서

는 업체에게 유리한 가격 자료만 제출하고 시중에는 동일 제품을 저가로 공급하였거나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례가 업계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보이고, 가격조작 등의 위법 행위를 통해 계약된 물품이 지속적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다수공급계약(MAS) 중인 48개 업체에 대하여 12월 8일부터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를 하였다.

또한, 조달청은 업체간 담합을 통한 가격조작 행위도 의심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조사도 의뢰하였다.

조달청은 감사부서 주관 특별점검 TF를 구성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세무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간의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백명기 구매사업장은 "조달 계약과정에서 가격조작 등 부정행위를 한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며 "시장가격 점점 및 제출서류 검증 강화, 다수공급계약 2단계 경쟁 대상 확대 추진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조달청 계약단가가 시중가격보다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관기자

병무청 블로그 기자단 모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이상수)은 병무행정 현장 중심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 기자 20명, 연인이 군에 입대한 금신기자 10명, 아들이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에정인 어머니 기자 10명 등 모두 40명이다.

활동기간은 2016년 2월부터 12월 까지이며, 월 10만원 활동비가 지급된다. 또한 매월 우수활동자에게는 최대 25만원까지 추가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mm0900@hmailnq)으로 보내면 된다.

송병배기자

## 아산췌,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선제적 범죄예방활동 실시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28일간 주민안전과 기초초차안 확립을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긴장이 완화된 사회분위기로 인해 사건·사고 등 각종범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방범활동 기간

동안 현금다액업소 등 범죄취약지역과 외국인 밀집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협력방범 체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동 기간 중 경찰관기동대와 상설중대의 민생치안 자원을 확대해 가시적이고 선별적 검문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범집행 의지를 인식시키고, 주차장과 골목길 등 성범죄 발생 우려지역 위주로 민·경 협업 점검을 전개해 강력범죄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야시간 비행청소년들이 주로 모이는 학교주변 운동장과 공원 및 유흥가 밀집지역, 청소년 유흥업소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연말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도활동도 추진한다.

오영석 생활안전과장은 "아산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헌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급

서산소방서, 안전사고 방지·현장대응능력 강화 위해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의용소방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특수방화복 및 안전장갑을 비롯한 개인안전장비 10개 품목을 서산 관내 의용소방대에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 다양한 생활안전구조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서산 관내 의용소방대는 범집제거, 동물구조 등 연간 400여건 출동하여 빠르고 정확한 시민 밀착

형 서비스로 소방력 확보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김경호 서장은 "생활안전구조 서비스의 증가로 의용소방대의 역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에 지급하는 개인안전장비를 통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119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 동구, 안전지대(安全地帶) 만들기 위한 순찰 강화

내년 2월 말까지 구석구석 주요 시설·주민 불편사항 개선 앞장서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동점기를 맞아 주민들의 보다 안전한 생활여건 마련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지역 곳곳에 대한 구정안전순찰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요 도로변, 생활 주변 및 재난위험 지역, 주택가 등에 대한 순찰 강화로 안전 위험요소 제거 및 각종 불편사항 처리를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순찰 내용으로 ▲제설장고 관리 및 화재 확보 ▲도로변 제설 자재(제설함, 모래주머니) 비치 ▲강설시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로 청소 상태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도로 포트홀, 균열 및 파손,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 등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일제점검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쓰레기 방지, 불법 광고물, 노상적치 등 생활속 불편사항 개선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정순찰 강화로 동절기 강설·동파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주민들의 보다 나은 정주(定住) 여건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영호기자

## 피라나·레드파쿠 등 7종 위해우려종 신규 지정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사람을 공격하거나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 7종을 위해우려종으로 14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위해우려종은 피라나, 레드파쿠, 마블가재, 엘리게이터가아, 머레이코드, 아프리카카발톱개구리, 레드테일캣피쉬 등이다. 종으로 구분하면 어류 5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1종이다.

이 중 피라나와 레드파쿠는 올해 7월 황성 마곡저수지에서 누군가 물레 버린 것이 발견돼 저수지의 물을 전부 빼고 개체를 찾기 위

한 수색 작업이 펼쳐지는 등 큰 소동을 일으켰던 종이다.

7종이 위해우려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위해우려종은 지난 8월 지정된 작은도롱구스, 줄가물치 등 24종을 포함하여 총 55종으로 늘어났다.

위해우려종은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유입될 경우 인체 피해와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높은 생물종을 말한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들을 국내 수입 또는 반입하려면 반드시 반입목적과 관리시설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종 뿐만 아니라 관상이나 애완용으로 키우던 외래생물을 무단으로 자연생태계에 방사하는 경우, 우리나라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외래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태계 교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위해우려종 55종에 대한 정보 책자를 12월 말 발간하여 전국 주요 도서관, 지자체, 환경단체 등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 공주소방서 대형공사장 현장방문 지도

공주메디컬센터 등 4곳 방문해 안전점검·지도

공주소방서(서장 송준호)는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관내 대형공사장에 대해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일 공주메디컬센터(공주의료원) 및 신공주소방서 현장 등 4개소에 대해 현장방문 지도를 실시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현장예찰의 중점사항으로는 ▲화기취급 및 안전수칙 준수 실태 파악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법제화에 따른

사전안내 ▲불을 사용하는 작업 시 소화기 등 초기대응장비 비치 확인 등 현장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관계자와 공사장 재난사고 예방에 대한 논의했다.

송준호 공주소방서는 "대형 공사장은 위험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 관계자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자율방재단 정기교육 실시

공주시, 자율방재단 자긍심 고취·임무의 중요성 강조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 8일 16개 읍·면·동의 자율방재단원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율방재단(단장 이은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15 공주시 자율방재단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자율방재단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는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김성용 총재가 강사로 나서 자연재해에 대한 자율방

재단 임무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또한 시는 이날 평소 지역 안전발전에 이바지해 태에 모범이 되는 박종현 씨(이인면 대표)에게 충남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박광복 씨(금학동 대표) 등 4명에게는 공주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총 22명의 자율방재단원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오시덕 공주시장과 공주시의회 이혜선 의장, 박병수 부의장이 참석해 단원들의 노고와 봉사정신을 격려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공주시 자율방재단은 각 읍·면·동에 1개씩 총 16개 단체에 290여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사고 예방, 풍수에 대비 재난예찰·예방 활동 등 재해대비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 아산소방서, 소방계획서 작성 홍보·안내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9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변경된 소방계획서(안)에 대해 관계자가 이를 올바르게 알고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안내에 한창이다.

소방계획서 표준안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체계적으로 소방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일반사항과 관리계획, 대응계획, 실행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서식이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특정소방대소방관 관계자가 변경된 서식에 대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및 우선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계획서(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산소방서 이종하 서장은 "소방계획서는 관리자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라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새로 개편된 소방계획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계획서(안는 아산소방서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서식→민원서류)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각종서식→소방계획서) 권장서식에서 찾을 수 있으며, 소방계획서 관련 문의는 아산소방서 화재대책과(538-0274)로 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유명무실'

### <대학내일 20대연구소> 납부 가능대학 65곳뿐... 그중 41.9%는 제휴 카드사 단 한 곳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여전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는 지난 11월, 4년제 대학 중 재적학생 1만명 이상의 전국 대학 및 재적학생 2천명 이상의 수도권 대학, 전국 국공립 대학 131개교와 전문대학 중 재적학생 9천명 이상의 전국 대학 22개교 등 총 153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및 분할납부 제도 정착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방법은 대학알리미 자료를 바탕으로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고지된 등록금 납부와 관련한 공지사항을 참고했다. 조사대상 153개교 중 신용카드 등록금을 수납하는 학교는 65개(42.5%)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88개(57.5%)의 학교는 신용카드 수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대학은 카드사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평균 1.7%)가 등록금인상 요인이 된다고 이유를 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12년 이후 5차례에 걸쳐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1건도 상임위조처 통과되지 못했다. 연평균 667

만원이라는 거액의 등록금을 받기만 할 뿐, 대학과 국회 모두가 대학생의 등록금 납부방법 선택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신용카드 납부 가능여부는 지역별로도 대학유형별로도 크게 차이가 난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65.8%가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반면, 학생 모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그 비율이 49.4%로 떨어졌다. 정부의 권고를 준수해야만 하는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5.9%의 대학만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았으나, 사립대학에서는 무려 72.3%의 대학이 신용카드를 거절하고 있었다. 전문대학에서는 조사대상 22개교 중 단 2개 대학만이 신용카드를 수납을 허용해 신용카드 수납 불가 비율이 90.9%에 달했다.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65개 대학을 대상으로 몇 개의 카드사와 가맹을 맺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단 1곳의 카드사와만 제휴한 대학이 무려 41.9%에 달했다. 평균적으로도 2.2개에 불과하였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카드사와 제휴는 맺었지만, 사실상 카드로 수납하기는 싫다는 의미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한 대학이 40%가 넘음에도, 실제 신용카드 등록금을 납부한 비율은 4%에 불과하였는데, 내가 가진 신용카드와 대학이 수납 가능한 신용카드와 매칭되지 않는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신용카드 납부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납부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등록금 분할납부 또한 온전히 정착하지 못했다. 5개 대학은 여전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학기당 4회 이상의 분할납부를 권고하였음에도 2회 또는 3회로 제한한 대학도 18곳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권고사항을 넘어 법률로써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학기당 6회 이내의 범위에서 학생의 선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4.12.17) 또한 국회에서 잠자

고 있을 뿐이다.


분할납부를 실시하는 148개 대학 중 93.2%(138개교)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을 달아놓고 있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에 대해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초과 학기자, 장학금 수혜자, 복학 예정자, 전과 예정자 등 학교별로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가계 곤란자에 한해서만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도 한다.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제 활성화 방안'은 국가 장학금 등 장학금 수혜자도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권고하고 있고, 신/편입생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지 말라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 학기자,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 각각 41.2%, 39.2%의 대학이 분할납부를 제한하고 있고, 복학 예정자(4.1%), 전과 예정자(2.7%), 가계 곤란자에 한해 분할납부 가능(1.4%) 등 제한사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정복 기자

충남교육청, 영국 중학생 방문단 9일간 체험학습 실시

한국의 가정생활 · 문화 직접 체험



영국 런던의 세인트 마이클스 칼리지 (St. Michaels Catholic College) 중학생 15명이 한-영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충남에서 국제교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9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국제교류학습은 지난 11월 충남의 중학생 15명이 영국 런던의 서퍽(Southwark)교육구청내 학교를 방문해 교육학에 교류를 마친 답답으로 상호방문교류의 원칙에 따라 충남의 중학교에서 국제교류 체험학습을 실시하게 됐다.

한-영 학생 국제교류는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 양국 젊은 세대 간 교류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영국 학생들은 방문기간 중 오전에는

천안새샘중과 천안봉서중 등 2개 학교에서 국내 학생들과 함께 학교 수업에 참여한 뒤 오후에는 독립기념관, 천안박물관, 한국민속촌, 경복궁 등지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체험학습을 갖고 있다.

특히 방문기간 동안 홈스테이 방식으로 진행돼 영국 학생이 한국 학생의 가정에 머무르면서 한국의 가정생활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국제교류에 참여한 케빈 샌체즈(Kevin Sanchez, 세인트 마이클스 칼리지 학생)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많이 배우고, 한국 학생들과 얘기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 좋았다"며 "한국의 문화를 런던의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내포=이재우 기자

## 충남교육청 후기고등학교 원서 마감 결과 미달

아산→천안 113명서 28명·85명 감소  
천안→아산배방 319명서 179명·140명 감소

충남도교육청이 후기고등학교 원서 접수 마감 결과 미달로 나타났다. 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16학년도 후기고등학교 원서접수 마감 결과 76개교 1만7713명 모집에 1만7686명이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천안 평준화지역 후기고등학교는 534명 모집에 정원의 56%를 포함해 5172명이 지원했다.

천안 평준화지역의 학교배정을 위한 학생들의 배정 희망결과를 살펴보면 1지망 지원학생이 장원을 넘어서는 학교는 ▲천안중앙고(43명) ▲천안두정고(18명)

▲천안쌍용고(34명) ▲천안청수고(43명) ▲복자여고(62명) 등 5개 고등학교이다.

특히 고등학교 입학전형 결과 천안·아산지역에서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천안지역 평준화고등학교에 지원한 천안지역의 학생이 2015학년도에 비해 466명에서 5057명으로 392명이 증가했다. 또한 아산지역에서 천안 평준화지역으로 지원한 학생은 113명에서 28명으로 85명이 감소하고 천안에서 아산 배방지역으로 지원한 학생은 319명에서 179명으로 140명이 감소했다.

한편 천안 이외의 지역에서 매년 270

## 충남교육청 후기고등학교 원서 마감 결과 미달

여명의 학생이 천안지역으로 지원하였으나 급년에는 66명이 지원했다.

천안 고교평준화를 통해 충남지역 고입전형이 안정화되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입 맞춤형 진로교육이 학생들 다수가 자기 고장의 학교를 지원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후 일간고평준화고 입학과 관련한 일정을 살펴보면 ▲12월 17일 수험생에 비소집 ▲12월 18일 선발고사 ▲합격자 발표는 비평준화고 12월 29일, 평준화고 내년 1월 6일 ▲내년 1월 15일 평준화고 합격자 학교배정 발표 ▲ 내년 1월 18일 배정고등학교 예비소집 ▲ 내년 1월 20~22일 합격자 등록으로 진행된다.

## 청소년 자살예방 · 위기대응 연수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도순)은 9일 오후2시 제2회의실에서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연수'를 보령관내 Wex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Wex센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4년 사망자수는 13,836명으로 전년 대비 591명(-41%) 감소했고, 자살률은 2013년 28.5명에서 27.3명으로 감소하여 6년만에 최저(10만명당 27.3명)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자살률 1위(OECD국가)의 사실은 여전하다.

이에 보령교육지원청은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우울과 불안이 위험한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자살 징후 조기 발견 및 신속한 개입을 통한 적극적인 자살방지를 위해 연수를 개최했다.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박민아 팀장을 초빙하여 △청소년 자살의 이해 △청소년 자살 위기 개입 △청소년 자살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박민아 팀장은 "누가 자살을 생각하느냐보다 자살하려는 사람 옆에 누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면서 "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청소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복 기자

## 대전학생교육문화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16년 1월 1일부터 근무

대전학생교육문화원(원장 전우창)은 2016년 야간개원 연장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사서실무원)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문화원은 야간개원 연장사업을 통해 주간엔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종합자료실과 열람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보다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무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문화원 자료실 근무 및 일반열람실 열람지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홈페이지(<http://www.dsacc.or.kr>)에 게시된 공고문 첨부자료를 참고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과(042-229-1422)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환 기자

## 세종누리학교 전공과 개설 신입생 모집

최근 취업 흐름에 맞춘 직업훈련과정 모두 28명 규모

세종시 첫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교장 정민호, 이하 누리학교)가 지난 9월 12개 학급으로 개교한데 이어 전공과를 추가로 개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한다.

전공과는 현재 편성된 유·초·중·고 학교 급들과 구분된 별도 2년 과정으로 목공, 도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최근 취업 흐름에 맞춘 직업훈련과정으로 운영된다.

모집 규모는 1학년과 2학년 각 14명씩 모두 28명으로, 주민등록상 세종시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상이다. 현재 타 시도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동일 조건 학생 중 세종시로 전입했거나 전입 예정인 자도 지원 가능하다.

누리학교는 오는 15일까지 교무실로 원서를 접수받고 직업·적응·면접 평가 등의 전형을 거쳐 이달 23일 학교홈페이지와 개별통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누리학교는 9월 학교 다목적 강당에서 관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설명회는 신설되는 전공과를 중심으로 누리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안내됐다.

세종누리학교 정민호 교장은 "누리학교는 대형엘리베이터, 경사로, 바닥 난방 등의 시설들로 몸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학교다. 개별학생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재학생들의 자립생활과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누리학교는 중증 중도·중복학생 대상 35개 학급 22명 수용 규모로 지어져, 현재 12개 학급에 3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35명의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세종=이정복 기자

명도 가졌다. 설명회는 신설되는 전공과를 중심으로 누리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안내됐다.

세종누리학교 정민호 교장은 "누리학교는 대형엘리베이터, 경사로, 바닥 난방 등의 시설들로 몸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학교다. 개별학생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재학생들의 자립생활과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누리학교는 중증 중도·중복학생 대상 35개 학급 22명 수용 규모로 지어져, 현재 12개 학급에 3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35명의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세종=이정복 기자

## 제5회 금산교육대상 시상식 가져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손중대)은 9일 다락원에서 개최된 '행복금산 축제의 날'에 제5회 금산교육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로 5회를 맞는 금산교육대상은 2011년 제1회를 시작으로,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직무에 충실하여 금산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우수 교직원을 발굴·표창하여 그 공적을 기림으로써 교육 유공자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사회적으로 스승 존경과 공교육 신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제5회 금산교육대상 수상자는 장한스 등 5명에 금산동초 교장 김철동, 금산동중 교사 박은영이 선정됐다.

김철동 교장은 각종 컨설팅으로 교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학교경영 실적이 인정되었으며, 박은영 교사는 학교중심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한 교육지원부문 수상자인 복수중 강대구 행정실장은 금산교육지원청 및 충청남도교육청 추진 업무를 적극 실천하여 신규 및 저경력자 등의 실무능력을 배양한 공로가 인정됐다.

교육봉사부문 수상자인 황승영은 금산선업고 운영위원장, 금산군 운영위원장 장영희의 회장으로 금산문화의 집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센터와 연계한 공로가 인정됐다.

금산=김남규 기자

## 아산 금곡초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 관람

아산 금곡초등학교(교장 장동선)는 지난 8일, 유치원과 초등 전교생 500여명이 함께 '신나는 예술여행' 아트서커스를 관람했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 우수한 문화예술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을 온 국민과 더불어 누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문화나눔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날다> 아트 서커스단에서 '수지, 날다'란 주제로 수지의 공간에서 중력을 이겨내며 구르고 회전하면서 떨어질 듯 공중 연기를 펼치는 퍼포머들의 아찔한 서커스가 이어질 때마다 학생들은 환호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특히 분 공연이 끝나고 학생들은 외출(타이트 와이 어걸)기, 안전매트 위에서 밧줄 타기, 저글링 체험 등을 서커스 단원들과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장동선 교장은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의 여유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문화예술 체험활동 기회를 더 자주 가져보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 기자

##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청양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자)은 지난 8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지역 위원 및 학부모 위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학교담당경찰관은 최근 청소년 범죄 현황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갈산고등학교 이재용 교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직과 역할, 운영 사례를 발표하여 연수에 참여한 자치위원들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김은자 교육장은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로 2015학년도를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탐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청양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이 없고 학생 위험 제로 환경을 위해 진전된 학교문화 개선과 함께 학교폭력 위해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청양=정상범 기자

## 신규학생상담자원봉사자 기초사전연수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우)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신규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의 기초소양을 기르기 위한 기초사전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기초사전연수의 내용은 기초상담능력 향상을 위해 상담이론 및 집단상담이론의 이해과정과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활용을 위한 집단상담 기법 및 미술치료, 원예치료실습 등의 활용과정으로 구성됐다. 또한 강사로는 지역 내 고경력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부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및 상담교사를 위촉하여 내실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사전연수를 이수한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2016년 1학기에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진행되는 연수를 2차례 더 이수하고 2016년 2학기부터 학교현장에서 상담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김용우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봉사자의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에 대한 소양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긍정적 관점과 믿음을 갖고 학교에서 생활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동 정 ●

제52회 무역의 날 시상식



안희정 충남 도지사= 10일 오전 10시30분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4분기 충남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52회 무역의 날 시상식 참석.

정례브리핑 주제



이춘희 세종시장= 10일 오전 10시에 정읍실에서 정례브리핑 주제.

천안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10일 오전 10시 30분 충남도청에서 열리는 '2015년 4분기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에 이어, 오후 2시 천안 신부공원에서 열리는 '천안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참석.

세종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임상준 세종시의회의장= 10일 오전 10시 수정웨딩홀에서 열리는 세종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김석환 홍성군수= 10일 오후 1시 30분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참석.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황선봉 예산군수= 10일 오후 2시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2015 예산군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참석, 오후 6시 예산축협에서 열리는 예산군 기업인 송년의 밤 행사 참석, 오후 7시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제42회 매년 음악제 참석.

이동·여성폭력 근절 결의대회

충남도는 여성폭력 추방 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9일 양양온천역 광장에서 이동·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과 충남 이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여성단체협의회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세상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보라!'라는 슬로건으로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했다.

결의대회 행사장에서는 여성폭력 피해 사진전을 함께 개최했으며, 서명운동 및 가두 캠페인은 양양온천역에서 아산 장미마을을 왕복하며 진행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도 관계자는 "여성폭력 추방 주기를 맞아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결의대회 등을 계기로 여성 폭력 추방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이지용기자

# 공무원 청렴도 10단계 수직상승

## 충남도, '2015 청렴도 평가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위 기록

충남도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가 크게 높아졌다. 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에서 업무를 진행한 공사·용역·민원인 등 외부고객과 도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행위 발생 및 신뢰도 저해 행위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도가 이번 평가에서 10단계 이상, 전국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

해 강력한 반부패·청렴 대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그동안 국민권익위로부터 청렴 컨설팅을 받고, 청렴도 취약점 진단을 통해 분야별 맞춤형 청렴 정책을 수립·추진했다.

또 행정부지시를 본부장으로 하는 청렴대책본부를 구성 체계적으로 대응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와 부패 신고자 보호 지침을 제정하고,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외부고객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계약·공사·용역 등 취약분야 민원인에 대한 청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출장식비 본인부담제 실시, 민간과의 청렴협약체 구성·

운영, 소극적 행정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해결하는 컨설팅 감사도 도입·운영했다.

이와 함께 청렴마일리지 제도운영, 4급 이상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통한 간부의 솔선수범과 전 직원의 청렴정책 동참을 유도, 조직문화 개선 10대 과제 추진, 익명게시판 운영, '비정상포럼' 운영 등을 통해 내부 청렴도를 높여 왔다.

도는 이밖에 도지사와 실·국장 청렴 서약과 간부 공무원 청렴 교육, 전직원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를 통한 청렴 분위기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도가 받은 종합청렴도 점수는 7.36점(10점 만점)으로, 지난해 6.40점보다 0.96점이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최고의 점수상승을 기록했다. 1위(7.60)와는 0.24점 밖에 차이 나지 않는 점수이다.

윤종훈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평가에서 도의 청렴도 순위가 크게 오른 데에는 전 직원이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한 결과"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측정 결과와 전국 광역단체 중 중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점수에 만족하지 않고, 조직원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전국 최고 '청렴충남'을 실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이지용기자



## 조치원역~육일육교 디자인 담은 보도 설치

### LED전등 추가설치, 주민 생활안전 확보·범죄예방 효과 향상

조치원읍 거리가 특별해졌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읍장 홍순기)이 조치원역~육일육교 보도구간에 명품도시에 걸맞는 아포리즘(aphorism, 격언)과 픽토그램(pictogram, 그림문자)을 활용한 디자인 보도를 설치했다.

조치원읍은 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으뜸길(조치원역~침산리 육일육교 구간) 보도설치공사를 했으며, 1억8000만원을 들여 조치

원지하차도도 개선했다. 특히 조치원역 보도구간에 설치한 격언과 그림문자 디자인은 인근 주민과 고객, 흥대생 등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조치원지하차도에는 건강과 행복을 상징하는 심장형을 패턴(타일 조각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붙여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작업하고,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 LED전등을 추가 설치, 주민 생활

안전 확보 및 범죄예방 효과를 높였다.

세종시와 한국철도공사가 추진 중인 생활편의시설 확충공사와 연계하여 구도심 환경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기 읍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조치원읍 구석구석이 특색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정환기자

## 대통령기록관 울타리 무궁화로 새단장

### 행복도시, 무궁화 보급 확대 관련 사업 지속 발굴·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종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현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대통령기록관 담장에 내년 2월 무궁화(1,000주)를 식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행복도시 내에서 나라꽃 무궁화의 의미를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장소가 대통령기록관이라고 판단, 지난 8월부터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대통령기

록관에 무궁화 담장 조성을 결정했다.

식재는 내년 2월경 대통령기록관 경계부의 기존 판목 울타리에 연계해 무궁화 울타리·백담식약담장 주변에 내년 2월 무궁화(1,000주)를 식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행복도시에 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국민들이 나라꽃 무궁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등 무궁화가

친근하고 사랑받는 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앞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번 대통령기록관 무궁화 담장화 사업을 시작으로 무궁화 공원, 무궁화 가로수길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종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를 나라꽃 무궁화가 가득한 도시로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 홍성군 2015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완료

### 자치법규·행정여건 변화 등 상위 행정기관 명칭 변경

홍성군은 조례·규칙·훈령 등에 관한 자치법규 490개를 일제정비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상위법령이 제 개정됐으나 조례나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상위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이번 정비는 명칭 변경이 반영되지 않거나 조직개편과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현실에 맞지 않은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실시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월부터 각 부서별 의견과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2015.6.5.공포),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2015.9.15.공포), 「홍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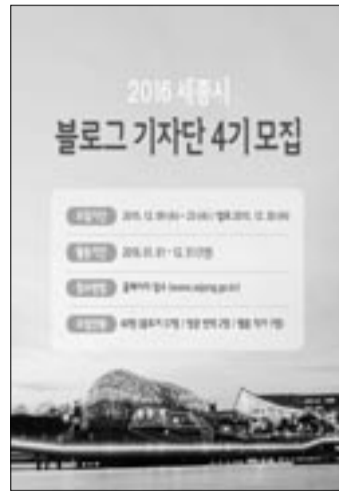
괄개정 조례」(2015.10.12.공포)를 제정하여 정비하였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제명 띄어쓰기(48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홍성군 행정기구 명칭정비(12건),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의 명칭변경(5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정비(22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용어표기 정비(33건),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표현 등의

내포=이지용기자

## 제4기 블로그기자단 모집

세종시, 오는 23일까지 인터넷 접수...1년간 활동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9일부터 23일까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가득한 '제4기 블로그기자단'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는 블로그 기자와 영문 번역가, 웹툰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명을 모집

하며, 선정 결과는 30일(수) 세종시 홈페이지, 공식블로그에 발표할 예정이다.

블로그기자단은 ▲채택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 지급 ▲우수 활동 기자 표창 ▲축제, 행사 및 각종 시설 취재지원 ▲세종시 캠퍼(사전답사)와 홍보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민과 인근 지자체 거주자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4기 블로그 기자단은 내년 1년 간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변화하는 세종시의 모습을 알리고 체질을 바탕으로 신규 콘텐츠 발굴에 참여한다.

세종=김정환기자

## 대한민국 지자체 e-마케팅 페어 예산군 최우수상 수상

예산군이 이베코코리아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 페어' 특산물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9일 군에 따르면 e-마케팅 페어는 이베코코리아가 2009년도부터 매년 실시해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128개가 참여해 G마켓과 옥션 메인 웹사이트에 지자체 홍보관을 개설하고 농식품·관광상품 판매 실적과 소비자 설문조사, 네티즌이 참여한 우수 지역 고객 투표 결과를 종합 평가했다.

군은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사과와 사과즙, 표고버섯, 고추장, 한과 등 다양한 특산물을 홍보 판매했다.

특히 행사기간 동안 사과 3000여 상자(1900여만원)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둬 지난 추석 명절 기간 전국 정보화마을이 공동으로 추진한 특별 판매전에서 증실률 사과마을이 전국 1위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군이 명실상부 사과의 고장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 관계자는 "사과의 고장답게 다양한 특산물 중 사과 판매량이 많았다"며 "사과와 함께 다양한 군의 특산물을 알리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오프마켓을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갔겠다"고 말했다.

한편 e-마케팅 페어 시상식은 오는 16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광고문의 (042)538-3030

## 통합건강증진사업 '새 활로' 모색

### 통합건강증진사업보고대회

충남도는 9일 태안 리솜오션캐슬에서 '2015년 통합건강증진사업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도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단장 이석구 충남대 교수)이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는 김형선 도 보건정책과장과 시·군 보건소장, 담당 공무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내년 사업 추진전략 보고, 시·군 건강증진 사업 우수사례 발표 등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9일부터 23일까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가득한 '제4기 블로그기자단'을 모집한다.

## 홍성군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주관한 충남 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2015년 11월말까지 공매의뢰건수 및 3개년 평균 공매 대환 실적 등을 반영한 평가결과로 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상과와 상금 70만원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매추진 실적 등으로 2015년 11월말 기준 과년도 체납액 1,203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50%를 초과달성하는 높은 성과를 올렸다. 군은 효율적인 지방세수 증대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공매의뢰를 더욱 활성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 예산 덕산시장 연말 대(大)행사

### 지역 문화 살린 다양한 행사로 소비자-재미 둘 다 잡았다



예산군은 9일 덕산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연말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연말 대(大)행사'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덕산시장 상인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K-Sale Day'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전통시장 연말 대(大)행사'로 풍성하고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보부상단전놀이와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노래자랑은 흥겨운 시장분위기를 만들어 이용객들에게 대형업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전통시장만의 정과 흥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용객

들은 "대형마트 보다 물건도 싸고 옛 시장의 정겨운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비자도 웃고 상인도 웃는 모두가 풍성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상인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활짝 웃고 즐기는 신명나는 시간을 보내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며 "관내 각 시장별로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문화를 발굴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도민 건강증진사업 '새 활로' 모색

충남도는 9일 태안 리솜오션캐슬에서 '2015년 통합건강증진사업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도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단장 이석구 충남대 교수)이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는 김형선 도 보건정책과장과 시·군 보건소장, 담당 공무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내년 사업 추진전략 보고, 시·군 건강증진 사업 우수사례 발표 등

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지역사회재활발전방향'과 '흡연 중독의 심리적 이해'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토론을 갖는 시간도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고대회는 건강증진 사업 수행능력 함양과 발전 방향 제시, 사업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마련했다"며 "각종 정부 및 의견 교환 등을 통해 도내 건강증진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내포=이지용기자

등정 인터뷰



김홍장 당진시장 = 10일 오전 10시 복지재단회의실에서 열리는 당진시 복지재단 제5차 임시정기 이사회에 참석, 오후 4시 30분 대전TJB에서 열리는 TJB 특별생방송 지역에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인터뷰에 참석.

송년행사



유기준 아산시의회 의장=10일 오후 3시 호서대 학술정보관 개관식에 참석, 오후 6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2015 하산시 기업인 송년행사에 참석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이재광 당진시의장= 10일 오후 3시 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5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찾아가는 문해교실 졸업식



한상기 태안군수 =10일 오전 10시 30분 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소강당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문해교실' 졸업식에 참석

이동군수실 운영



이석화 청양군수 =10일 오전10시 정산면 문화경로당에서 이동군수실을 운영.

예산안 심의



현재규 아산교육장 = 10일 오전10시30분,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김은자 충청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2016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참석.

이산 케이크 판매업소 특별 위생점검

아산시는 성탄절을 대비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케이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함께 제과점 등 케이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또는 판매목적 진열보관여부,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 적정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연장 및 변조행위 등이다.

특히 위생 점검 시 위생우려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의뢰, 검사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입류 조치하며, 검사결과 기준·규격 등이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내년도 조직개편 본격 '착수'

당진시, 조직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탄력성 제고 위해 실시

당진시가 2016년도 조직개편안을 담은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일 당진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도 조직개편 작업 본격착수에 들어갔다.

당진시는 이번 조직개편은 기능이 중복·유사한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해 조직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탄력성을 제고해 민선6기 새로운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을 기반으로

로 시정이 강조해온 소통과 참여, 책임과 신뢰가 바탕이 된 '행복한 변화 살고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라 경우 조직은 기존 4국(단), 3담당관, 27과, 126명,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4읍면에서 3국, 4담당관, 26과, 128명,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4읍면 동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전략사업단이 폐지되고 미래전략사업단 소속

의 전략사업과, 지역자원조성과가 폐지되며, 시장전반 분야별 정책개발과 시의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을 수행할 정책개발담당관, 복합민원의 one-stop 서비스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허가과, 각종 재해 재난의 사전예방 및 시민안전의 총괄 업무를 수행할 안전총괄과가 신설되게 된다.

이율리 농산 부인과 수산·항만 부문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농정과와 농수산유통과를 통합해 농업정책과로 항만부

와 수산분야를 통합해 항만수산과로 통합 개편되게 된다.

이 밖에 법률상담 등 행정에 대한 소송과 징정민원의 증가에 따른 법률지원팀,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 극대화와 시민과 사이버 소통의 공간 마련을 위한 미디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보장 업무를 위한 생활보장팀, 공공건축물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공공건팀 등을 신설해 시민중심의 조직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유류피해 배·보상률 96%·완벽한 마무리 '총력'

태안군, 유류피해 사고8주년,피해민 구제책 마련에 온힘



96%인 2만 4700건이 1심에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법에 따른 재판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구건수와 피해입증 자료의 부족 등으로 소송이 상당기간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1심은 내년 2월, 2심은 내년 말, 3심은 2017년 말경 각각 종결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정부 대부금 상환과 관련, 군은 지속적인 대 정부 건의를 통해 지원지침 개정을 이끌어 상환기간을 재관확정 판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시키는 성과를 거두는 등 피해민 구제에 최선을 다한 결과 11월말 현재 총 대부금 278억 2100만원(9527건) 중 266억원(8785건)이 상환돼 96%의 상환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율리, 지원 방안에 대한 해수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원의 사정재판 결정 이후 피해민들의 이익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1심이 진행 중 정부 대부금 상환관리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 등 사고의 마무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군은 유류피해 소송 및 배·보상과 관련, 지난 2013년 1월 16일 법원의 사정재판 결정 이후 피해민들의 이익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1심이 진행 중 정부 대부금 상환관리 ▲'보상받지

청양군 다양한 자원연결로 복지사각지대 고품격서비스 지원

청양군은 최근 질병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두 가정을 발굴, 관내·외 및 민·관 자원을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수혜자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다.

이번 수혜 가정은 세면시설도 없고 난방이 안되 겨울에는 온전히 추위에 노출된 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또 질병, 고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낡고 노후 된 주거공간을 수리하지 못해 곤경에 처해 있었다.

이에 군 희망복지지원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만원(가구당 500만원 한도) ▲사회복지협의회 '1004의 두꺼비집' 및 '좋은 이웃들' 사업비 200만원 ▲화성면 남녀 새마을협의회 350만원 ▲KT&G사

희망팀 120만원 ▲기타 80만원 등 총 1750만원의 민간 자원을 끌어 모았다.

이 같이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이장, 읍면복지협의체 등이 주된 틀로 부터 발굴된 어려운 가정에 대해 욕구와 문제 등을 파악해 기대에 부응하는 가구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정부3.0 서비스정부 구현에 앞장서

고 있다.

특히, 배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출연금이 피해민과 피해지역의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피해민단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군은 유류피해 10주년인 오는 2017년 개편을 목표로 만리포 일원에 유류피해극복 기념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건립이 완료되면 해양수산부와 충남도, 대택연합회 등과 함께 사고 극복 10주년 행사를 개최, '태안의 기억'을 함께 일궈낸 전 국민과 123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맹천호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은 "그동안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사업, 해양환경 복원, 환경보건센터 설치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피해 극복과 지역발전이 힘써왔으나 정부 지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집중피해지역의 절박했던 상황을 고려해 시·군간 성과 위주의 경쟁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道 우수지회 선정

충남새마을운동 추진대회김기원 협의회장대통령상등 11명 수상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지회장 고대식, 이하 태안군지회)가 충청남도 우수지회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8일 공주시 교동연수원에서 열린 고대식, 이하 태안군지회가 충청남도 우수지회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지회는 지난

윤선점 부녀회장과 태안군지회 고나희 사무국장이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무려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충청남도 새마을회가 주관하고 충청남도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행복공동체 으뜸충남'이라는 주제로 새마을운동이 추구하는 '나눔·봉사·배려'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됐으며, 도내 15개 시·군 새마을지회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태안군지회는 올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 '군민이 행복하고 희망찬' 태안군 건설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지회로 선정됐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밑반찬 만들기, 목욕 봉사, 쌀 및 김장 나눔 등을 실시하는 한편, 스승의 날에 퇴직 교사들에게 점심식을 제공

고 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의 장점은 공적지원의 한계를 넘은 부족자원을 민·관 협력을 통해 최대한 발굴 및 연계해 만족도가 높은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외 자원을 최대한 발굴해 희망복지지원 사업 및 여러 민관 자원을 매칭해 만족도 높은 사업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가뭄극복 위해 적극적인 절수 실천

청양군, 2261만1000원 절수지원금 혜택

청양군이 물 절약캠페인을 활발히 펼친 결과, 가구당 평균 1만4300원 씩 총 2261만1000원의 절수지원금을 받게 됐다.

군은 40년만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가뭄 캠페인 및 전단지 배포 등으로 절수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군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가가호호 서한문을 발송해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인 범 군민 절수 분위기를 조성했다.

군은 비상급수시설을 가동해 보령댐 물 절약 목표율 250% 이상 달성했으며, 특히 군민들의 자발적 실천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개월간 지방상수도용을 사용하는 전체 3255가구 중 486%인 1581가구가 1만8235톤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석화 군수는 "사상 유례가 없는 가뭄의 어려움 속에서 한층 더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가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절수지원금은 보령권 광역상수도 수수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 동일 사용량의 20%이상을 절감하면 수돗물을 1톤당 정수생산단가 413원의 3배에 해당하는 1240원을 수도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청양=정성범기자



당진문화예술학교 성과 공연·전시

오는12일 블랙박스 공연장에서 수강생 발표회 열어

당진문화예술학교가 올 한해 교육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수강생 발표회를 오는 12일 당진문화예술학교 3층 블랙박스 공연장에서 갖는다.

당진문화 예술학교는 당진의 문화예술 보급 및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올 한해 문화강좌,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사업, 지역형 문화예술교육, 시설대관 등 지역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다각도 사업을 전개했다.

주요 문화강좌로는 음악, 미술, 무용, 문학, 융합 등 5개 분야에서 65개의 강좌를 개설해 운영했으며 총 972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이번 발표회는 올 한해 강좌 수료료 기납해 수강생의 예술 활동 의욕고취 및 축하하는 자리로 보편적 예술교육의 보급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성과를 확인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연과 전시로 나뉘어 진행될 이번 발표회에서는 디지털 피아노, 성악, 우쿨렐레, 밸리댄스, 오키나와, 통기타, 가야금, 색소폰 등 한해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또 2층 로비 및 미술실에서는 한국화, 수채화, 도예, 문예창작, 인물화, 유화 등의 분야에서 수강생들의 우수한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온양풍기초 희망나눔 캠페인 실시

온양풍기초등학교교장 송화현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전교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활동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모금된 성금은 충남교육청과 충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협약 체결에 따라 전액 모두 충청남도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사용이 되며, 일부는 재해시의 구호사업과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모금에 참여한 2학년 학생은 "과거먹고 싶은 돈을 아껴서 저금통에 넣었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 맛있는 과자를 먹고 행복해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모금에 참여했다.

송화현 교장은 "이번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을 통해 온양풍기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눔의 덕목을 알고,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음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 부여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겨울철 대비 82개소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진행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겨울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와 폭설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22일까지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형화재 발생이 높은 노인·아동시설, 소풍물, 대형집회장과 폭설·강풍에 취약한 경량 철골 건축물 등 82개소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점검사항은 ▲건축물 분야에서는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경량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전기·가스분야에서는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비상발전기 및 예비전원 확보, 가스차단기·경보기 등 시설의 작동상태 ▲기계·승강기 분야에서는 승강기 안전장치, 지하설비 누수·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상태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군은 분야별 점검이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및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중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 및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방활동을 강화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수가 이용하는 집회, 체육시설 등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여=한대수 기자

# 올해 양촌꽃감축제 12일 '팡파르'

## 송어잡기·메추리구워먹기 등 6개분야 38개 다채로운 행사 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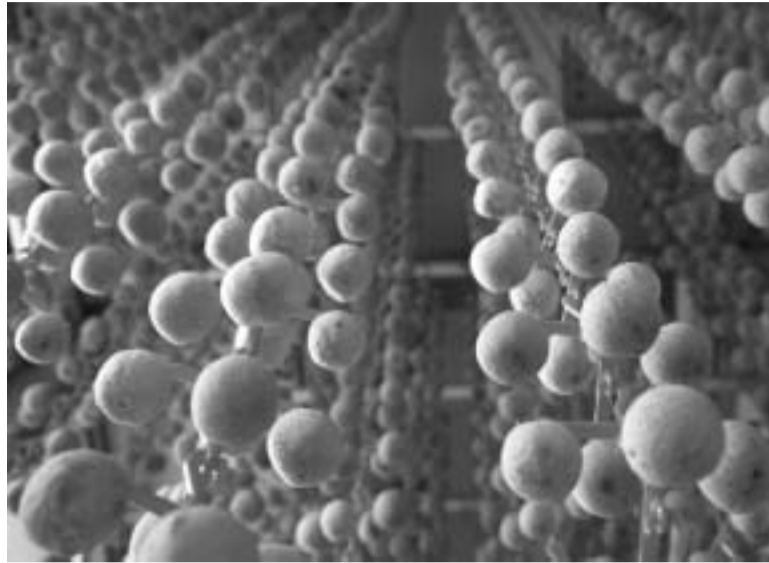
2015 양촌꽃감축제가 '갯빛 물든 그리움 정이 물처럼 흐른 햇빛촌'을 주제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논산시 양촌면 양촌리 체육공원에서 마스한 막을 올린다.

올해 13회를 맞아 총6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양촌꽃감축제장을 찾으면 송어잡기, 메추리구워먹기, 감갈게 낚기, 감갈게 체험 등 겨울추위를 뚝뚝 달아갈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아울러 감와인, 감식초 시음회, 꽃감팔죽시식회 등 감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시식행사를 마련해 고향의 훈훈함과 정을 선사한다.

축제 첫날인 12일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범공연, 나진아 박쇼, 제6회 꽃감가요제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4시 개막식을 개최하고 개막축하공연과 꽃감가요제 왕중왕전 등이 펼쳐진다.

13일에는 평안민속예술단 특별



공연, 트롯대행진, 제2회 청소년댄스경연대회, 퓨전난타와 서울패밀리 위잉칭, 통기타 듀엣 등이 출연하는 7080콘서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흥겨움을 더할 예정이다.

또 꽃감농장에서 정성 들여 말린 명품꽃감과 청정 햇빛촌에서 재배한 딸기, 곰취, 머위, 상추 등 지역

의 농특산물도 함께 구입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김공수 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 꽃감축제는 꽃감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의미가 커 꼭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남도지사 품질인증 Q마크 획득, 2008년 대한민국 우수특산

품 대상 선정 등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양촌 꽃감의 달달한 맛과 다채로운 체험을 즐기시고 마스한 정도 뚝뚝 달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꽃감축제, 영동꽃감축제과 더불어 3대 꽃감축제 중 하나인 양촌꽃감축제는 풍부한 일조량과 선선한 북서풍, 높은 일교차의 자연건조과정으로 만들어지는 쫄쫄한 명품꽃감을 홍보하고, 양촌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지역의 대표 겨울축제다.

한편, 10월 하순부터 11월 말까지 잦은 가을비와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꽃감이 건조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30일 꽃감생산농가 긴급회의를 소집, 축제시 꽃감을 염색해서 우수한 꽃감만을 출하하기로 결의하며 자질없이 축제를 준비키로 결정했다.

논산=한대수 기자

통정

### 천안평화의소녀상제막식



구본영 천안시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실업연구구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고 오후 2시 신부공원에서 개최되는 천안평화의소녀상제막식에 참석

### 논산딸기 판촉행사



황명성 논산시장은 10일 오후 12시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개최되는 논산딸기 판촉행사에 참석

### 천마산천마정준공식



최홍목 계룡시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애항장학회 이사회 참석, 오후 2시 천마산

정상에서 열리는 천마정 준공식 참석, 오후 6시 30분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보육교직원을 위한 밤 행사 참석.

### 이취임식



노박래 서천군수는 10일 오전 10시 아름다운웨딩홀에서 열리는 서천군이장단연합회 단합대회에 참석하고

오후 6시 30분 재인서천군민회 정기총회 및 제13-14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 명예 읍면장 위촉식



이용우 부여군수는 10일 오전 11시 여성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명예 읍면장 위촉식에 참석.

### 천마산천마정준공식



김혜정 계룡시장은 10일 오후 2시, 천마산에서 개최되는 천마산 천마정 준공식에 참석

### 서천군 '춤 일자리 한마당' 성료

#### 13개 기업·구직자 500여 명 참여, 300여명 면접

서천군은 9일 서천 문예의전당에서 개최된 '2015 서천군 맞춤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 구직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군이 주최한 이날 일자리 한마당에는 국내경기 불황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환산케미칼, 연수중공업 등 지역을 대표하는 13개 우수 기업들이 참가하였으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500여 명의 구직자가 현장을 찾았다.

이날 기업들은 사무, 관리, 서비스,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명을 채용목표로 많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현장면접을 통해 다수의 구직자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장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무료 이력서 사진촬영, 무료메이크업 등 다양한 취업관련 이벤트 행사도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청년층 고용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일자리한마당 행사를 통해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와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취업 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해 구인업체와 구직자 모두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천=김태선기자

### 천안시민 15.49% '나눔의 천사'

####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봉사자 9만3683명...학생 등 참여 활발

천안시민 10명 중 15명 이상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각 분야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를 통한 더불어 '행복한 도시 천안' 조성에 성과를 내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9만3683명으로 전체 인구(60만4883명)의 15.49%에 이르고 있다.

이들 봉사자들은 흉터평준축제 등 행사는 물론 생활전반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취약계층 봉사, 문화·예술·체육 재능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안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2012년 6만1178명, 2013년 7만1350명, 2014년 8만1813명, 올해 11월말 현재 9만3683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은 20대 이하가 2만 8848명(30.79%) ▲20대 2만3671명(25.2%) ▲30대 9945명(10.6%) ▲40대 1만4365명(15.3%) ▲50대 1만233명(10.9%) ▲60대 이상 6621명(7.06%) 등으로 20대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5년 실업률은 1만3,330명이며, 11월말까지 봉사활동 참여 연인원은 모두 11만5096명이었으며, 참여자의 직업별 분포는 ▲공무원 350명 ▲사무직 1,442명 ▲전문직 2,052명 ▲서비스직 1,283명 ▲자영업 2,022명 ▲농수산업 18명 ▲군인 19명 ▲주부 7,493명 ▲무직 784명 ▲학생 1만9023명 ▲기타 8만610명이 활동했다.

천안의 자원봉사단체의 연대와 화합을 위해 구성된 전문주거개선단체인 '1+3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2011년 1호집에 이어 2015년 14호집을 마무리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자원봉사ZONE, 청소년생태지킴이, 푸른나눔기본교육, 제과제빵 가족자원봉사단, 환경과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봉사단과,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자원봉사교육강사양성과정,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정 등 전문자원봉사단을 운영해 적재적소에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천안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확인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려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천안시가 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등 안전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연간 봉사활동 실적 50시간을 넘는 회원에게는 관내 368개소의 할인판매업소를 이용할 경우 5~30%를 할인해주는 자원봉사자 신분을 발급해 자긍심을 높여준 것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용석 센터장은 "올해는 그 어



느해보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한해였다"며 "자원봉사활동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 계룡시 2015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단체 선정

####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지방재정 발전에 기여

계룡시(시장 최홍목)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금운용 성과분석평가'에서 지난 4일 우수자치단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지방기금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도하고 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해 지방재정 발전에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이번 기금평가에서는 243개 지자체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24개 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계룡시는 기금운용에 대한

높은 일몰제 적용률, 낮은 타 회계 의존율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지방기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홍목 시장은 "기금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기금을 정비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지속적인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유 자금의 효과적 활용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앞으로 건전한 지방기금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비롯한 7종의 기금 56억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등에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

계룡=주선용기자



### 부여군 깨끗한 부여만들기 동참

#### 시설관리공단,쓰레기 수거 등 자연정화활동 펼쳐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해용)은 지난 9일 주민과 화합하여 깨끗한 부여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하고자 가화저수지 주변 방치된 쓰레기를 줍는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공단 직원 20여명이 참여하여 실시한 이번 자연정화활동은 지난 가을 가화저수지 주변에서 낚시를 즐기는 낚시꾼들이 무단으로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와 이용객들이 투기한 생활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어 지역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진행했다.

박해용 이사장은 "가화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부여군청소년수련원과 서동요세트를 찾는 이용객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부여군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대수 기자

### 서천군 올해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열려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서천군지회 회장 이경희는 8일, 서천군보육기술센터 교육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서천군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는 보육 교직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보육인 모두가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키우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영유아 보육 발전에 기여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8명에게 군수표창 등이 주어졌다.

또한 2부에서는 "고생하신 그대여!! 잠시 힐링의 시간을"이란 주제로 서천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전통예술단 훈, 무지갈 가수 최

영석의 공연으로 한해동안 수고한 보육교직원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참된 보육은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며, 보육 교직원의 행복이 아동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육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육교직원 전원은 "영유아 보육에 더욱 정진하며, 나아가 공보육 실현의 시대적 요구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보육인 윤리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보육교사로서 직무상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자 다짐했다.

서천=김태선기자

### 광고문의

##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통정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워크숍



오시덕 공주시장= 10일 오후 3시 고마에서 열리는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워크숍 참석.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김동일 보령시장= 10일 오전 10시 30분 시장실에서 열리는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오후 1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제10회 은빛축제 한마당, 오후 6시 머드린호텔에서 열리는 대전5동 체육인의 밤, 오후 7시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2015 상담인의 밤.

사랑나눔하우스 3호주택 입주식



이완섭 서산시장은 10일 오전 11시 서산시 고운로 허나무에식장에서 열리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자원봉사자 간담회에 참석, 오후 3시 30분 성연면 예덕리 사랑나눔하우스 3호주택 입주식 참석.

한중일농업유산協 조직위 출범식



박동철 금산군수= 10일 오후 5시 30분 황실서 열리는 제3회 한중일농업유산협의회 조직위 출범식 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도순 보령교육장= 10일 오전 10시 30분 도예결산위원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보령시 기업인협의회 송년의 밤 가져

보령시 기업인협의회(회장 최현규)는 지난 8일 저녁 화산동 소재 우리콩참관장 식당에서 기업인협의회 송년의 밤을 가졌다.

김동일 보령시장과 지역 5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업인협의회 송년의 밤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중소기업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주자자동차대학 주관으로 세미나를 갖고 산관학 협력 지원 사업 등을 설명했으며, 협의회는 2015년도 결산과 결과보고, 2016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올 한해의 기반을 바탕으로 내년에도도 재도약을 결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현규 회장은 "기업인협의회가 단순한 대표들의 모임이 아니라 각기업 간의 정보교류와 화합을 통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지역경제 발전의 사명감을 갖고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을 통해 상생 발전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 "각기업들이 우수 상품에 대한 활발한 홍보와 판로개척으로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현장에서 쏟은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이 보령시의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속도를 내고 있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기업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 기업인협의회는 최현규(주)보령장갑 대표를 주축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상이 30개 업체, 30억 원 이하가 79개 업체 등 지역의 109개 중소기업이 가입해 상호협력과 다지고 있다.

내년 금산인삼축제 밑그림 그린다

내년 9월 24일부터 10일간 열려, 가족형 체험컨텐츠 보강... 산업형 축제 위상 강화

지난 8일 군청 3층 다용도회의실에서 금산군축제추진위원회 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회 금산인삼축제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금산인삼축제집행소위원회 김동일 총괄분과위원장은 결과보고를 통해 관람객 87만여명, 91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올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축제 성공요인으로 연일 이어진 화창한 가을 날씨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만족하는 체험컨텐츠, 관광객 요구에 맞춘 편의서비스와 민·관의 전략적 홍보마케팅 등을 꼽았다.

반면, 주말 가족 관광객이 집중되면서 야기된 주차장 부족문제와 행사장 밖 외지상인의 바가지 요금



등은 축제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전국 축제와 겹쳐진 일정, 추석이후 개최로 인해 관광객 감소를 예상했으나, 당초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고 국민건강축제의 진가를 보여줬다"

며, "올해 축제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대한민국 대표 산업형 축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과보고 이후 내년도 축제개최 시기 선정을 위한 추진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추석을 기점으로 날씨와 연휴일정, 인삼수확시기, 타 축제시기, 주민참여 등의 내·외부적 요소들을 고심한 끝에 올해는 9월 24일 토요일부터 개최될 10월 3일까지 10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단, 내외빈이 다수 참석하는 개막식은 하루 전인 23일 야간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가을 날씨가 시작되는 9월 말을 시작으로 개최될 연휴를 축제일정에 포함시켜 5일간의 휴일동안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금산군과 금산군축제추진위원회는 제35회 금산인삼축제의 개최기간이 확정됨에 따라, 바로 내년도 금산인삼축제의 밑그림을 그려 나갈 예정이다.

금산=김남규 기자

중산천 제방도로 대형차량 운행제한 실시

높이2.5m·1.5톤 이상 화물차·18인승 이상 승합차 통행제한 공주시, 보행자 안전한 보행권 확보·교통사고 예방 나서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금홍동 우남퍼스트빌과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을 연결하는 중산천 제방도로에 대해 차량 높이 2.5m, 1.5톤 이상 화물차, 18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차량의 차량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일 운행제한 시설물과 안내문, 운행제한 예고 표지판 등을 설치, 이들 대형차량의 통행을 본격적으로 제한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중산천 제

방도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전

에 임시로 사용한 도로였으나 금홍동 지내의 인구유입으로 급격하게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 폭을 확장하는 등 정비공사를 꾸준히 시행해 왔다.

하지만 꾸준한 교통량 증가와 맞물려 이곳을 따라 도로로 이동하는 시민들도 함께 증가했으며, 별도의 인도가 조성돼 있지 않아 대형차량 등이 지나갈 때에는 도로로 통행하는 시민들이 잦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공주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도로의 대형차량을 제한하게 됐다.

공주시 건설과 지역개발팀 권성오 담당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행복관공주 만들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 신축공사 착공

가공식품 시제품·판매용 제품을 생산설비 구축

서산시는 9일 인지면 모월리 410번지 일원에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 착공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장승재 서산시의회 의장 및 농산물가공창업보육교육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건립 부지 6,762㎡에 21억5000만원을

들여 889㎡규모(지상2층)의 전락 식품가공실, 소량가공 및 창업보육실, 제품검사실 등 농업인이 가공식품 시제품 및 판매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농업이 어렵다지만 창의력과 열정적인 벤처정신을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미래의 첨단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며 "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농가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우리시 농업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6차 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이론과 실기를 겸한 가공창업교육을 추진해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공주시 사곡면, 제설작업 자원봉사단과 간담회 가져

자연재난 발생 대응능력 강화방안 논의

공주시 사곡면(면장 김학혁)이 지난 8일 오후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사곡면 자율방재단 20여명과 함께 겨울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응능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봉사단원의 주요 임무와 역할에 대한 소개,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단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학혁 면장은 "전원적인 산간지역에 유구천, 마곡천 등 큰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임을 강조하며 제설작업에 있어 봉사단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몇 개 마을은 작은

눈에도 마을 전체가 고립되거나 통행에 지대한 지장을 주는 취약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이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유사시 신속히 제설작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재 자원봉사단장은 "자연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신념으로 평소에도 재난발생 우려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폭설 등 재해에 대한 예방 활동에 충실히 임해 사곡면이 공주에서 가장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보령시 금연구역 지정 확대

버스승강장 78개소 추가 지정...길거리 흡연 사라진다

보령시는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보령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동지역 버스승강장 7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 지역 버스승강장으로 기 지정된 시내 지역 4개소(부부처와 건물 세븐일레븐 앞, 구대전역 앞, 메가박스 앞, 현대상가 앞)를 포함해 모두 82개소의 버스승강장이 금연구역이 됐다.

시는 시민들의 발인 버스승강장에 금연구역을 지정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흡연행위로 인해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버스승강장에 대한 금연 표지판과 안내문을 부착하고 금연지도원과 함께 홍보 및 사전 계도 활동을 펼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1일부터는 흡연자를 단속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형권 보건소장은 "버스승강장에 추가로 금연구역이 지정돼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고,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다"며, "승강장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약자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 시내지역 버스승강장 4개소와 종합버스터미널을 시작으로 2013년 학교철대정화구역 58개소, 2014년 주유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보령=김태성기자



금산군 평생교육 청사진 나왔다

중합계획 발전전략 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금산군은 지난 8일 군청 2층 상회의실에서 오는 2020년까지 '배움의 열정과 나눔의 즐거움이 공존하는 평생학습도시 금산'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금산군 평생교육 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박동철 군수를 비롯한 평생교육 관련 담당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충남 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결과 보고, 건의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2020년까지 5개년을 시간적 범위로 하는 금산군 평생교육 활성화 발전전략의 3개 정책 목표로 ▲지속가능 지역공동체 구축 ▲지역자원의 리모델링 ▲배움과 나눔의 실천 등을 제시했다.

이어 3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는 ▲네트워크를 확고한 공조체계 구축 ▲학습을 통한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 확립 ▲지역자원에 기반한 특화프로그램 강화 ▲평생교육 참여 증대를 통한 배움문화 확산 등의 제안과 동시에 이를 시행할 20개의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박동철 군수는 "이번 용역을 통하여 제시된 비전 및 추진과제를 금산군에 접목, 향후 2020년까지 금산군의 평생교육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며 "여러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체계화로 금산군 평생교육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김남규 기자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with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www.daejeontoday.com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머님은 내머느리 (SBS오전8시30분)



수경은 현주와 경민이 함께 미국에 간다는 소식에 분노하며 현주를 찾아간다. 현주는 앞에서 비아냥 거리는 수경에 오히려 경민과 잡혀볼 거라며도 받고, 수경은 분에 못이겨 한다. 한편, 성태는 경민과 현주의 미국행을 막기 위해 경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내일도 승리 (MBC오전7시50분)

선우최필립과의 결혼을 왜 승낙했는지 묻는 재경(유호린)에게 영선(이보희)은 찾기에 치량사고만

아니였어도 시키지 않았을 거라 이야기한다. 한편, 선우는 승리를 찾아와 녹음 파일을 지우라고 하고 이를 훔쳐주승원인가 보게 되는데...

▲장사의 신 2015-객주 (KBS2 오후 10시)



봉삼이 돌린 사발뚝뚝만 믿고 원산으로 몰려드는 보부상들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책임감을 느낀 봉삼은 보부상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만 그들마저 욕의전과 결탁하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는 현실을 마주한다. 이에 봉삼은 보부상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경기가 도정장 선거에 나서게 되고, 이를 막기위해 신석주는 길소개를 도정장 선거에 내보내게 되는데...

케이블 명화

▲나는 전설이다 (OCN 오후 7시20분)

인류 최후의 생존자.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아무도 없었다. 아내도, 사랑하는 딸도 모두 사라졌다. 그날 이후 모래 폭풍이 그치지 않는 이곳은, 폐허가 되어버린 뉴욕이다.

2012년, 인류의 멸망. 2012년, 전 인류가 멸망한 가운데 과학자 로버트 네빌(스미스)만이 살아남는다. 지난 3년간 그는 매일같이 또 다른 생존자를 찾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방송을 송신한다.

지구에 살아남은 것은 그만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무엇인가를 찾아낸 그. 그러나 그가 그토록 애써 찾아온 생존자들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변종 인류'로 변해 버렸다.

인류 최후의 생존자 vs. 변종 인류. 이제 그는 전설이 된다!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네빌, 면역을 가진 자신의 피를 이용해 백신을 만들어낸 방법을 알아내야만 한다.

어딘가 살아있을지 모를 인간들을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그는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을 시작한다!



▲댄싱퀸 (채널CGV 오후 10시00분)

서울 시장 후보의 아내가 댄싱퀸?! '혹시 가수 해 볼 생각 없어요?' 왕년의 신촌 마돈나 정화 앞에 댄스 가수가 될 일생 일대의 기회가 찾아온다.

하지만 오랜 꿈을 향한 도전의 실패도 잠시, '서울 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다!'는 남편 정민의 폭탄 선언!

서울 시장 후보의 부인과 화려한 댄싱퀸즈의 리더 사이에서 남편도 모르는 위험천만, 다이내믹한 이중생활이 시작된다!

엄정화는 왕년의 댄스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고 언제 어디서나 춤 연습을 하며 댄스 가수를 꿈꾸는 독특한 설정으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사소한 사생활까지 지저분하게 작용하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꿈에 도전하는 황정민에게 부인이 댄스가수를 꿈꾸는 상황은 굉장한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모님과 가수 연습생의 역할을 천연덕스럽게 넘겨야만 하는 엄정화의 이중생활이 다이내믹하게 펼쳐져 관객들에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과 폭풍웃음을 선사할 것이다.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뮤지컬 '드라큘라' 주연배우 6인 캐릭터 콘셉트 이미지 공개

1차 티켓 오픈 앞두고... 화제 모으고 있어



뮤지컬 '드라큘라'가 1차 티켓 오픈을 앞두고 주연배우 6인의 캐릭터 콘셉트 이미지를 공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일 뮤지컬 '드라큘라'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작품 속 캐릭터로 완벽 변신한 주연 배우 6인의 콘셉트 이미지를 공개했다.

배우들은 고딕적인 분위기의 소품들과 함께 강렬한 표정 연기를 선보이며 뮤지컬 '드라큘라' 작품 특유의 차가우면서도 치명적인 매력

을 발산해 이목을 눈길을 끌고 있다.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드라큘라 역의 김준수, 박은석은 이번 콘셉트 이미지를 통해 눈 내리는 어둠 속 내면의 고독한 슬픔을 가진 드라큘라를 표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더불어 이번 뮤지컬 '드라큘라'에 새롭게 합류한 임혜영, 강홍석, 진태화, 이예은도 콘셉트 이미지를 통해 과감하고 도발적인 모습을 선보이며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신동엽-이성경, 2015 MBC 연기대상 메인 MC 확정

연기대상 메인 MC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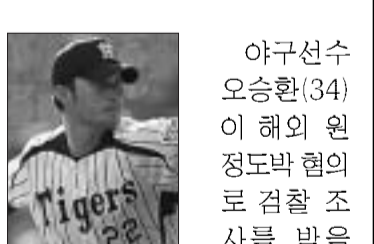


2015 'MBC 연기대상' 메인 MC로 방송인 신동엽과 배우 이성경이 확정됐다. 올해 MBC 드라마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며 압도적인 흥행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 둘이 만나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둘이 만나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승환,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소환 예정



오승환(34)이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폭력조직 광주송정리과 행동대장 출신의 도박장 운영업자 이모(39·구속 기소)에게서 오승환이 동남아 지역 카지노에서 역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함께 사이의 다른 뮤직비디오들도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7일 오전 기준 '강남스타일'은 24억 6600만뷰, '행오버'는 2억 2800만뷰를 돌파했다.

한편, 3년 5개월만에 정규 7집 '칠집싸이다'로 컴백한 싸이는 주요 음원차트 정상을 석권하며 인기 물이증인 가운데,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연말 콘서트 '올댓스타일 2015 - 공연의 것싸이'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케이블 & 위성 방송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 schedules.



**공주시 탄천면, 다문화가족 고부간 마음누기 행사 마련** 공주시 탄천면(면장 이열하)과 탄천면 복지협의회(위원장 김경태)가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8일 탄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고부간 마음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나눔과 섬김·재능기부 봉사활동 펼쳐**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차준일) 기술직원들로 꾸려진 '디젠티기술봉사회' 회원 10여명이 9일 대전시 중구 부사동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 부엌 환풍기 설치, 천정도배, 외벽과 대문 페인트 칠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며 울들어 4번째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벌였다.



**광석면거점지역봉사센터, 김장나눔 행사** 광석면거점지역봉사센터(센터장 이정숙)에서는 지난 8일 20명의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배추 150포기로 사랑과 정성을 담은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산소방서, 탕정면 남성의용소방대장이·취임식** 이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9일, 탕정농협 대회의실(탕정면로 소재)에서 지역 각 기관 단체장 및 소방가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탕정면남성의용소방대장이·취임식을 가졌다.



**한솔동소재 기업, 김장나눔 릴레이**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동장 최영미)에 있는 주요기업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연이어 김장나눔행사를 가졌다.



**서산경찰서, 교통사망사고예방유공시민감사장 전달** 서산경찰서(서장 김석돈)는 15. 12. 9.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협조해 준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 한국폴리텍대학, 2015년 대전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서 대전캠퍼스 행자부 장관상 수상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학장 서규석)는 9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15년 대전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전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는 대전광역시 주최·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 주관으로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등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발전의 위대한 헌신에 온 힘을 기울여(단체)들을 발굴하는 취지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시상식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는 장애인기능



경기대회 유치와 취약계층 대상 재능기부, 사랑의 밥차 참여 등으로 지역사회 나눔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직접 발로 뛰는 봉사를 펼쳐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살렸다는 평을 받았다.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는 "앞으로도 대전캠퍼스는 교직원 및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의 참여를 늘리고 지역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며 더불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 ● 동정 ●

**충남새마을운동 촉진대회**



한재득 대전광역시 새마을회 회장 = 10일 오후 4시 30분 대전광역시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시회장단 및 이사, 감사 등 22명이 참석해 2015년도 제4차 이사회의를 개최.

### 공주KB국민은행 지점장 공주대 발전기금 기탁



공주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창호)는 지난 12월 8일 오후 2시 총장접견실에서 김창호 총장, KB국민은행 유흥규 공주지점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탁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공주대를 방문한 KB국민은행 유흥규 공주지점장과 관계자들은 대학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김창호 총장에게 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유흥규 공주지점장은 "전통 있는 공주대 발전이 곧 지역발전으로 연계되며 대학생들의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인 공주대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전기금 기탁식에는 김창호 총장, 박창수 대외협력본부장, 배재웅 사무국장, 최용순 재무과장, KB국민은행 유흥규 공주지점장, 이용호 부지점장, 손소영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 전달, 사진촬영,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정성범기자

###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동참은 계속



청양의 인재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조성중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이 200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8일 민족통일 청양군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익환씨가 군청을 방문해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김익환씨는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장, 청양군생활체육회장, 법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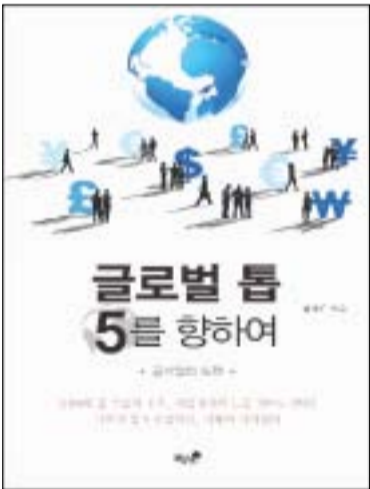
부 범죄예방위원회 청양지구협의회장, 초대 청양군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오고 있다.

김익환씨는 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과에서 늦깎이 공부를 하던 중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고 감동 받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 운영대 '글로벌 톱5를 향하여' 출간

전 조폐공사 사장, 경영혁신에 관한 이야기들 담겨있어



(Challenge), 변화(Change), 창신(創新, Creative innovation)을 말한다. 그는 조직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3C를 강조했다. 4N이란 새로운 성장엔진(New Engine), 새로운 시장(New Market), 새로운 기술(New Technology), 새로운 시스템(New system)을 말한다. 그는 조폐공사를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 4N정책을 펼쳤다.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운영대 전 사장이 새로운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글로벌 톱 5를 향하여'다. 부제는 '공기업의 도전이다'.

이 책은 운 전 사장이 조폐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추진했던 경영혁신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이 책에는 그가 공기업 사장으로서 무엇을 하고자 했으며 어떻게 했는가?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실패가 있었는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담겨있다.

조폐공사는 화폐사업이 줄어들면서 수년간 3500억원대의 매출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출정체의 늪에 빠져있는 위기상황이었다. 운 전 사장은 매출정체의 늪에 빠진 조폐공사를 구하고 지속성장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경영전략을 추진했다. 이른바 3C 4N의 경영철학과 전략을 추진했다. 3C란 도전

송병배기자



대전대 합창클래스, 다섯 곡 연주 관람객들 큰 호응 얻어

### 교수 중창단 '대전대 합창 페스티벌' 열려

대전대학교(총장 임용철)는 대학 해화문화관 블랙박스에서 재학생과 교수가 함께하는 '대전대학교 합창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계획된 이번 합창 공연은 해화인성교양과목으로 개설된 합창클래스 학생 61명과, 대전대학교 합창단 그리고 교수 중창단이 함께하는 첫 공연이다.

공연은 세계로 거듭나는 대학을 염원하기 위해 대전대 합창단의 난타공연으로 첫 문을 열었으며 합창클래스 학생들과 합창단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총각타령' 및 'Fly Me To The Moon' 등 각각 다섯 곡을 연주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정복기자

### '제5회 문학의식 작품상' 수상자 선정

호서대 김중태 교수, 상상력에서 기인하였다는 점 높이 평가

호서대학교(총장 강인구) 김중태(44·문화콘텐츠학과교수)가 '제5회 문학의식 작품상' 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수상작품은 허공의 아가들에게(문학의식 2015년 봄호 발표)이며, '문학의식 작품상' 심사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문학의식에 발표한 총 80여 편의 신작시 중 예심을 통과한 5편의 작품을 엄정하게 심사해 김 교수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에서 '허공의 아가들에게'에 관해 "더욱 깊어진 기존의 울림과 그 울림이 대지와 우주를 넘나드는 광활한 상상력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며, 상처받은 소망이 피신한 저 피안을 향한 끈질긴 통곡의 서사를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중태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계간 문학의식은 올해로 창간 25주년 100호를 맞이한 중경 총합문예지로서 한국문학의 저변 확대와



질적 제고에 이바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서대 김 교수는 1998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여 시집 떠나는 것들의 밤길, '오각의 방', 평론집 '문학의 미로', 자연과 동심의 시학, 운명의 시학' 등을 간행하였고 제4회 청마문학연구상, 제3회 시와표현 작품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20일(일) 오후 5시 문학의식 송년회 밤' 행사장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수여된다.

이산=리량주기자

### 우수인재 양성 장학금 기탁 (주)영남강철, 1000만원 기탁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일 (주)영남강철(대표 최성대)로부터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좋은 인재 기르기 협력단" 참여 기업인 (주)영남강철이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교육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대전 관내 학교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주)영남강철은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 다양한 조달 우수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매년 1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여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최성대 대표는 "이번 장학기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좋은 인재 기르기 협력단' 사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탁하게 되었으며, 장학금 기탁에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협조하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말로하는전화

**1636** 누르고 목청꿀 을 말하세요

주문상담 080-1111-0000

NATURAL KOREA **네츄럴코리아**  
NAVER 네츄럴코리아  
www.naturalkorea.net



# 천연야생꿀 목청

Natural Honey 100%



YouTube '목청꿀' 채밀영상



## 네츄럴코리아 천연야생꿀 목청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원시림의 수 많은 꽃에서 얻어지는 꿀과 고목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이 합성되어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캄보디아의 원주민 사이에서도 '신비의 꿀'로 알려져 있으며, 진귀한 천연야생꿀 목청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소중한 분께 전하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며, 한정된 수량만을 특별한 가격으로 제공해드립니다.



2400g 특별행사가  
675,000원 → 472,000원



1200g 특별행사가  
345,000원 → 240,000원

### 『동의보감의 꿀』

별꿀은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비위를 보강하고 아픈 것을 멎게 하며 독을 풀 뿐 아니라, 온갖 약을 조화시키고 입이 험 것을 치료하며 귀와 눈을 밝게 한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검사로  
고품질의 안전한 꿀 인증



네츄럴코리아 목청은  
100% 천연야생 꿀입니다



원시림의 수많은 꽃에서  
얻어지는 꿀과 고목나무의  
수액이 합성된 '목청'



건강과 활력을 위해  
아침, 저녁 공복에  
꾸준히 복용하세요